

성인용 성경공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인도자 지침서>

글쓴이 : Michael Williams (마이클 윌리엄스)  
Todd Still (토드 스틸)  
Deborah McCollister (드보라 맥콜리스터)  
Zack Pannell (잭 팬넬)  
Ronnie and Renate Hood (로니 & 리네이트 후드)  
David Strawn (데이빗 스트론)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저작권 © : 2009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표준새번역 성경, 2001 에서 했습니다.

## BAPTISTWAY 운영위원

주총회(BGCT) 회장 : 찰스 웨이드(Charles Wade)  
선교, 전도 및 목회사역 부장 : 웨인 셰필드(Wane Shuffield)  
성경공부 / 제자훈련 부장 : 데니스 패럿(Dennis Parrott)  
사역팀장: 필 밀러 (Phil Miller)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 한국어 집필위원

에베소서 인도자 지침서 (1과 ~ 7과) 번역  
최승오 (새누리침례교회)  
빌립보서 인도자 지침서 (8과 ~ 11과) 번역  
이재형 (뉴송침례교회)  
골로새서 인도자 지침서 (12과 ~ 13과) 번역  
김승시 (한우리침례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과 ~ 13과) 편집  
최승오 (달라스새누리교회)

초판 : 2009년 4월

패티 레인(Patty Lane): BGCT 상호문화 사역개발부장  
넬다 P. 윌리엄스(Nelda P. Williams): 커리큘럼 개발부 고문 및 매니저

##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 ☞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개요를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들어가기를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각 단원은 저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만약 여러분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3. 여러분은 *Baptist Standard* 나 인터넷에 제공된 많은 성경공부를 위한 도구들의 정보를 얻기 원할 것이다. *Baptist Standard* 를 구독하기 원하면 전화 214-630-4571로 연락하고, 인터넷 정보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 원하면 baptistway@bgct.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다른 참석자들도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지침서**를 구입하라(한국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5. 성경구절, 본문,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고,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 각과를 공부함으로써 성경공부를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라.

## 인도자 지침서 저자

**Michael E. (Mike) Williams, Sr.**, 에베소서 1-7장의 “성경주해”를 썼다. 윌리엄스 박사는 Dallas Baptist University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장이며 역사학 교수이다. 그는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Trinity Hills Baptist 교회를 개척한 목사이다. 이번에 BGCT의 “성경주해”를 네 번째 썼다.

**Todd D. Still** (B.A., Baylor M.Div.,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University of Glasgow) 8-13과의 “성경주해”를 썼다. 스틸 박사는 Baylor University에 있는 George W. Truett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조교수로 있다. Truett로 오기 전에 그는 Dallas Baptist University와 Gardner-Webb University의 신학부에서 가르쳤다. 그의 다른 작품 중에 Expositor's Bible Commentary의 골로새서 주석을 집필했고, 현재 Smyth & Helwys Commentary Series의 빌립보서 주석을 집필하고 있다.

**Deborah McCollister** 1-4과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을 집필했다. 맥콜리스터 박사는 텍사스에 있는 Dallas Baptist University의 영어 교수이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맥키는 텍사스 알링톤의 First Baptist 교회를 현재 섬기고 있다. 그녀는 BaptistWay 성경공부 교재를 이전에 6번 집필 한적이 있다.

**Zack Pannell** 5-7과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을 집필했다. 42년 동안 그는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그리고 텍사스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했고, BGC0에서 4년 동안 사역했다. 잭과 그의 아내 낸시는 텍사스 덴튼에 살고 있다.

**Ronnie and Renate Hood** 8-11과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을 썼다. 로니 박사는 롱뷰에 있는 Fellowship Baptist 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그는 알라바마 버밍햄에 있는 Samford University를 졸업했다. 리네이트 박사는 텍사스 롱뷰에 있는 LeTourneau University의 성서학과 그리스어의 조교수이다. 로니와 리네이트 부자는 둘 다 New Orleans Baptist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로니는 이곳에서 M.Div., Th.M., 그리고 Ph.D(교회사)를 받았고, 리네이트는 M.Div.와 Ph.D. (성경학과 그리스어)를 받았다.

**David Strawn** 12-13과의 “교사를 위한 제안들”을 썼다. 스트론 박사는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First Baptist 교회의 교육 목사이다. 그는 텍사스의 Lubbock Baptist Association의 교육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성서 학사학위, 종교교육 석사학위, 그리고 성인 교육 박사학위를 얻었다.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2

저자 소개.....4

### 단원 1 : 에베소서

공부할 날짜

제 1과 _____	하나님의 계획.....6 (엡 1:1-14 )
제 2과 _____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12 (엡 2:1-10)
제 3과 _____	모든 성도가족을 사랑하심.....17 (엡 2:11-21)
제 4과 _____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에 마음을 열라 .....23 (엡 3: 14-21)
제 5과 _____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라.....28 (엡 4: 1-16)
제 6과 _____	인도를 따라 감.....35 (에베소서 4:17-5:2, 11-16)
제 7과 _____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41 (에베소서 5:21-6:4)

### 단원 2: 빌립보서

제 8과 _____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 봄 .....47 (빌립보서 1:12-14, 19-26)
제 9과 _____	예수님의 삶을 따라 감.....53 (빌립보서 2: 1-11)
제 10과 _____	가장 높은 목표를 추구 함.....59 (빌립보서 3: 1-14)
제 11과 _____	주 안에서 기뻐하라.....65 (빌 4:4-20)

### 단원 2: 골로새서

제 12과 _____	그리스도의 주권을 찬양.....71 (골 1:15-23)
제 13과 _____	영적 속임수가 아닌 실재에 집중하라.....77 (골 2:6-23)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

이 인도자 지침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성경공부를 인도하도록 성경주해와 교사를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어떻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이번 과목들은 그것을 도와 줄 수 있다.

이 서신서들은 때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린다 (빌레몬서도 이에 포함되지만 이번 성경공부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서신서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린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로부터 만들어진 이번 과목들은 최소한 두 개의 목적을 제시한다. 그것들은 책별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안내를 해준다. 그것들은 또한 참으로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한 안내서를 제공해준다. 아무쪼록 이번 과목을 공부하면서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기 바란다.

<p><b>[제 1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하나님의 계획</b></p>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엡 1:1-14</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엡 1장</p>	<p><b>학습주제</b>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해놓으신 풍성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p> <p><b>탐구질문</b>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가?</p> <p><b>학습목표</b>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한다.</p>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고대 세계에서 에베소 도시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령의 도시들 중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오늘날 이 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터키의 서부지역이다. 신약시대에 에베소는 주요 항구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후기에는 점차적으로 항구가 쇠퇴했다. 고대 항구 지역이었던 곳이 지금은 완전히 육지로 변해 있다. 놀랄만한 고대의 발달된 도시였던 에베소는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당시에 에베소는 이방신들에 대한 의식들이 성행되는 중심지였다. 신전, 항구, 그리고 그 도시의 지역적 위치 때문에 그 경제는 고대 기간에 풍성했다.

에베소는 또한 초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도행전 19-20장은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고,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곳에 거주했다고 한다. 믿을만한 전통에 의하면 마리아는 이곳 에베소에서 죽었고 디모데가 목사로 시무하다가 순교당한 곳이 역시 에베소라고 한다. 에베소는 요한계시록 2-3장에 언급되는 일곱 개의 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한다. 신약성경에서 에베소는 수많은 곳에서 언급되고, 초대 교회사에서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 중의 하나였다. 후에 에베소는 A.D. 431년에 주된 연합교회 회의 장소 중의 하나로 제공되기도 했다.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첨예한 논쟁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고 본다. 그러한 논쟁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비해 서신이 다소 비인격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한 가지 가능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회람되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처음에 이 서신이 에베소 교회로 갔고, 그 편지의 중요성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돌려 지며 읽혀졌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굳이 학자가 아니더라도 빌립보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썼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에베소는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린다. 바울은 A.D. 60-62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서신들을 썼을 것이다.

## 본문 해석

### 개요

**1:1, 2.**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자기 호칭은 고후 1:1과 골 1:1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호칭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도'(아포스톨로스)는 보내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된 것으로 문자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바울이 이 호칭을 자신에 대하여 사용한 것은 자신의 전도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질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낸 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하기 위함이다(행 26:16-18; 고전 9:1).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세상과 분리시킨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또한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충성을 경비한 성도들을 비유하는 표현이다(고전 4:17; 벧전 5:12; 요삼 1:5).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본절의 호칭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應答)한자들임을 시사한다(2:8).

###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1:3-6)

**1:3.**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축복한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 복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지상적이며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천상적이며 영적인 복이다(Foulkes, Lincoln, Bruce).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보여준다. 본 구절의 어조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도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4-5.** 이 두 개의 구절은 바울이 쓴 서신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의 하나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라는 구절을 들어서 예정론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문맥을 주목하는 것과, 다음 구절이 집합적인 의미의 용어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물론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바울의 “택하시고”라는 단어의 사용은 어떤 무리를 가리키는데 자주 사용되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태초부터 신자들의 모임이 되도록 택하셨다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거나, 혹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신적인 사명을 성취하는 순결한 도구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이 사명은 사랑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예정”에 대한 가장 적합한 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어떤 구별된 특정한 개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던 것을 교회를 사용하기로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문맥을 무시하고 고려해서는 안되는 구절이다. 여기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고대에 특별히 택하였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 신적인 사명을 완수하도록 택하셨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제 그 선택은 더 이상 국가적인 경계가 없다고 썼다. 교회의 선택, 혹은 예정은 하나님의 택하심들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람의 예정에 대한 이슈는 바울, 혹은 신약성경이 실재로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답변을 줄 수 있고, 이해를 줄 수 있는 무한한 질문이 남아있다. 바울의 에베소서의 목적은 교회의 그리스도론 기초와 그것에 대한 교회 공동체 책임을 다루었다. 바울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를 계획했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구절들은 또한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확증한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처럼 말이다. 이 두 구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물이 교회에 흐른다는 것이다.

**1:6.**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는 14절의 끝 부분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양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인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Hendriksen).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행위의 원리이다(2:5, 8). 이 은혜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셔서 양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바울은 예수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1세기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용되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 하나님의 구속계획 (1:7-12)

**1:7-8.** 바울은 이 구절과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 구절은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배경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구속받은 백성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구속과 바빌론의 포로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셨다.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속을 상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와 그의 피” - 예수를 의미,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원천으로서 설명한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 '구속'에 해당하는 헬라어 '텐아풀뤼트로신'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속전(贖錢)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Wood). 신약성경에서 구속은 두 가지 시상으로 나타난다. (1)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현재에 누리고 있는 구속을 가리킨다(롬 3:24; 고전 1:30; 골 1:14). (2) 장래에 누리게 될 종말론적인 구속을 가리킨다(14절;4:30; 록 21:28; 롬 8:23). 본절은 두 가지 시상 중 전자, 곧 현재에 누리는 구속을 의미한다(Lincoln).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훌륭한 표현을 사용했다. “풍성한”으로 번역된 본 절의 그리스어 의미는 다함이 없는 원천으로부터 솟아 흘러넘치는 생수를 묘사하는 말이다.

“모든 지혜와 총명”(1:8)은 영지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 이상의 고등지혜이며 실제 삶 중에 발생하는 현상과 사건을 이해하는 근원이다. 바울이 이 두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1)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며 (2)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갈고 닦으며 계속 사용해야 유용한 것임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1:9-10.**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1:10). 바울은 그의 독자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도록 신적인 통찰력을 받았다고 확증한다. '비밀'은 '단순히 숨겨져 있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신비'를 의미한다(골 1:27). 즉 전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진 진리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한다(9, 10절; 3:3-10;5:32;6:19).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없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 '바울'이나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다. 바울은 만물이 예전에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여러 개의 수가 합산 되어 하나의 숫자로 집약되듯이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던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목적을 향해 하나로 통일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인 세력을 가리킨다. 이런 영적인 것들은 '땅에 있는 것'과 연합되어서 통일성을 이루어간다. 이런 사실은 바울이 21, 22절에서 명시적으로 밝히는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이나 땅에 있는 것 즉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됨을 시사한다.

**1:11-12.**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상속”을 주셨다는 것을 추가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되어진다. 주석가 앤드류 링컨은 “신자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통일 된 우주적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sup>1)</sup> 다시 한 번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 함으로써 본문 전체 구절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와 추측을 다시 한번 강하게 심어준다.

1) Andrew T. Lincoln. Ephes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2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0), 35.

##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 (1:13-14)

1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주장한다. 그들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이 진리를 이미 들었고 믿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신자들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날인 치심으로 거하시는 성령을 확증한다. 그 이미지는 중요한 어떤 것에 개인적인 날인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중요한 편지에 인을 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다른 형식의 인은 동물의 몸에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날인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날인이었다는 것을 기록했다. 성령의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고, 오순절 이후 모든 신자들의 생명 속에 거하신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주와 보호자가 되신다.

바울은 한 소주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 한다고 외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20-23절에서는 그가 골로새서 1장에서 썼던 것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했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 삶과의 연결

1.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서신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들과 상황들을 위해서 쓰인 것인지, 아니면 교회들끼리 서로 회람하도록 쓰인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된다는 것을 언급하라. 대부분의 성서 학자들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또한 일반적인 교회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지적하라.

#### 학습인도

2. 에베소서의 처음 세 구절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반원들에게 말하라. 반원 중 한 사람이 1-3절을 천천히 읽게 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 ◆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 ◆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 ◆ 그는 3절에서 어떤 “복”을 어떻게 주셨다고 말했는가?

3. 반원 중 한 사람이 4-12절을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바울이 우리가 한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지 주의 깊게 듣도록 하라. 반원들의 생각을 들어보라. 한 구절 한 구절씩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반원들이 부르게 하고 칠판에 적어라.

4. 이 구절에 나오는 몇 가지 주된 의미들을 토론하라:

- ◆ 자녀로 삼으셨다 (영어성경은 adopted로 나옴): 학습공과 “준비”를 참조하라. 질문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것이 놀라운 복인가?
- ◆ 구속: 학습공과 “준비”를 참조하라. 질문하라, 왜 구속이 그렇게 놀라운 복인가?
- ◆ 용서: 학습공과 “준비”를 참조하라. 질문하라, 만일 죄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 신비: 반원들과 함께 이 단어에 대한 학습공과의 주해를 읽어라. 질문하라, 당신은 9절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

5. 택함을 받았다는 것(4절)과 예정되었다는 것(11절)을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라. 함께 참고 부분의 “하나님의 택하심” 부분을 읽도록 하라.

6. 반원들 중 한 사람이 13-14절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

7. 이 예화를 말하라: 아만다는 그녀의 아름다운 약혼반지를 내려다본다. 그것은 그녀의 피양새가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할 것ियो”라고 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녀가 언젠가 더욱 충만하고 깊은 헌신 속에서 그의 아내가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8. 성령의 날인은 약속의 위대한 표시라는 것을 지적하라. 학습공과를 참조해서 바울 시대에 날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라. 질문하라, 날인에 대한 비유는 성령의 역할에 대한 무엇을 보여 주는가?

### 적용 격려

9. 반원들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용어들로 생각하게 하라. 반원들이 에베소서 1:1-14b에서 배운 의미들을 다음 질문을 통해서 요약할 수 있도록 하라:

- ◆ 요약해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 ◆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
- ◆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게 되는가?
- ◆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택하셨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b>[제 2 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하나님께서 만드신 변화를 찬양</b></p>
<p><b>핵심본문</b> 엡 2:1-10</p> <p><b>배경</b> 엡 2:1-10</p>	<p><b>학습 주제</b>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을 때 현재,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p> <p><b>탐구 질문</b>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을 다르게 하는가?</p> <p><b>학습 목표</b>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일으키시는 다양성을 묘사하고 그러한 믿음을 새롭게 한다.</p>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1장) 설명했다. 독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에베소 신자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영향으로 이교 문화가 에베소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사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세 배가 더 컸다. 그 신전은 또한 아르테미스 신을 숭배하도록 고무시키기 위해 소아시아 전역에 선교사들을 보냈다. 각 지역의 순례자들은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에베소까지 여행을 했다. 의심할 것 없이, 이 종교적 활동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재정적으로 유익이 되는 종교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에베소에는 총독의 집도 있었다. 바울을 훼방하는 강한 유대 공동체와 기독교 교회가 그곳에 역시 있었다 (행 9장을 보라).<sup>2)</sup> 이러한 영향력들은 - 영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 기독교 공동체가 계속해서 상대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2) Charles A. Frazee, Two Thousand Years Ago: The World at the Time of Jesus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55, and A. N. Wilson, Paul: The Mind of the Apostle(New York: W. W. Norton, 1997), 182-187.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그는 그들이 복음을 알기 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구속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지 말해주기를 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묘사했고, 변화가 가져다 준 아름다운 결과를 묘사했다. 바울은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빠지기 쉬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었다.

## 본문 해석

### 옛것은 지나갔다 (2:1-3)

2:1-2. 고린도후서 5:17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처음 구절들은 바울이 의미했던 것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낸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은 죽음으로 특징지어진다. '죽었던'은 신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시사한다(Foulkes, Bruce, Wood).

그들의 상태를 기억나게 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바울은 롬 3:23과 6:23에서 또 다른 형태로 요약했다. 거기에서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이다” 라고 썼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이라고 상기 시켰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는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으로 '악의 영들'(6:12), 곧 '사단'(막 8:33; 눅 22:3)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곧 사단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했다. 바울은 또한 죄와 죽음은 타락한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확언했다.<sup>3)</sup>

2:3. 바울은 “우리도” 그러한 타락한 상태로 살았었다고 말한다. 오래전, 다메섹 도상의 유대교 바리새인 사울은 결코 그러한 비윤리적인 것, 혹은 이방인과 동일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새로운 바울은 기꺼이 그가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나. 그도 역시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다. 여기서 “육신”은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킨다(Houlden, Foulkes, Wood). 이는 성령 안에서와 삶과 대조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내는 삶이요(갈 5:19, 20),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이다(롬 8:8). 그러한 육신은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다 (로마서 6:23절을 보라).

3) Andrew T. Lincoln, Ephes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2 (Dallas, TX: Word Books Publisher, 1990), 93-96.

## 변화의 기적 (2:4-7)

**2:4.** 하지만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공흠에 풍성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 공흠'의 헬라어 '엘레에이'는 히브리어 '헤세드'(인애)와 상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충실히 지키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시사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다(롬 5:8).

**2:5-6.** 본질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1:20) 죄 가운데 죽은 죄인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했다. 로 인해 초래된 영적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공유하는 영적부활을 의미한다. 바울은 또한 8절에서 반복되는 병행구 -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 를 썼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은혜는 이 구절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글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주제이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부활시키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골 3:1-3에 암시되어 있다.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듯이 하늘에 앉히신 것도 비록 현재 참여하고 있는것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낸다.

**2:7.**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영원토록 확장될 것이라는 영원적 약속을 포함한다고 썼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의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바울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와 앞으로 오는 시대,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 새 것이 왔다

**2:8-9.** 그리고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 중의 하나가 된 것에 이르게 된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2:8). 그는 이전 구절들에서 현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신자들의 생명 속에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강론했었다. 그는 은혜와 믿음을 연결시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요원이 되었다. 믿음은 이 신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하는 어떤 것을 말한다. 바울은 그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했다.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9절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다(롬 3:27;4:2).

**2:10.**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그의 만드신 작품” 이라고 주장하실 만큼 아주 분명한 것이다. 이 새로운 창조물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확인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가져다 준 변화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타락된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 하신 상태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준비하셨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예비(豫備)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셨다는 의미이다(Lincoln). '선한 일'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다(살전 1:6-7, 롬 8:4).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 삶과의 연결

1. 반원들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관한 아무 이야기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라. 반응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되었으나 다시 살아난 사람
- ◆ 전쟁 중에 죽었다고 보고되었지만, 후에 포로수용소에서 살아 있는 것이 발견 됨.
- ◆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2. 많은 경우에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여전히 치료받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특히 성경 밖의 이야기들). 하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 사이의 놀라운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 학습인도

3. 칠판을 둘 로 나누어서 한 쪽은 “죽은” 다른 쪽은 “살아있는” 이라고 써라.

4. 반원 중 한 사람이 2:1-3절을 읽게하고, 다른 반원들은 “죽은” 것에 대한 주요 의미에 주목하도록 하라. 반원들이 대답하도록 하라. 칠판에 각 대답을 기록하라.



5. 학습공과의 “죽음으로부터” 내용을 활용하여 “허물”과 “조”에 대한 단어들에 대해서 토론하라.
6. 다음 질문을 사용해서 반원들의 코멘트를 들어보라: 이 구절들의 적용은 죄는 죽인다는 것이다. 죄가 무엇을 죽이는가? (대답은 관계, 기쁨, 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응을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질문을 반복하라.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의하도록 하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라!
7. 반원 중 한 사람이 4-9절을 읽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주요 의미에 주목하도록 하라. 반원들이 대답하게 하고 교사는 대답들을 칠판에 기록하라.
8. 반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각 그룹이 이 구절에 관련된 다음 질문들 중 하나에 각각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 (1)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 (2)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원 중 한 사람이 4-9절을 천천히 읽게 하라. 큰 소리로 읽던 조용한 소리로 읽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라. 약 5분 뒤에 대답을 듣도록 하라.
9. 다음과 같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미래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라. 그렇다면 오늘은? 10절을 큰 소리로 읽어라.
10. 비교를 위해 한 사람이 마태복음 5:16절을 소리 내어 읽게 하라. 질문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적용격려

11. 반원들이 에베소서 2:1-10절에서 다음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라:
  - ◆ 르우벤은 종종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곤 한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구절을 찾아라.
  - ◆ 제니퍼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떤 길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인지 궁금해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길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구절을 찾아라.
  - ◆ 크리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기에 바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은혜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되,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을 찾아라. 크리스의 말은 옳은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인가?
12.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반원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격려하라.

<p><b>[제 3과]</b></p>	<p><b>모든 그리스도 안의 가족들을 사랑하라</b></p>
<p><b>핵심본문</b> 엡 2:11-22</p> <p><b>배경</b> 엡 2:11-22</p>	<p><b>학습주제</b>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p> <p><b>탐구질문</b> 왜 우리는 - 침례교, 그리스도인, 인간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협력하여 평화롭게 하나 되는 것을 너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p> <p><b>학습목표</b>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 됨의 영역들을 이해하고 오늘날 그 하나 됨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을 파악한다.</p>

## 성경 주해

### 배경 이해

바울이 에베소서 2:1-5절에서 드러낸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들의 도덕적 상태와 영적 상태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이 구절에서 그의 유대적 관점으로 바울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시킨다.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 의해 멸시를 받았다. 그들의 죄와 함께 이 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의 독자들에게 말했다. 이전 구절에서 그는 죄로 인해 죽은 것과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비교했었다. 이 구절에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비교했다.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항하는 편견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두 그룹 사이에 존재했던 분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인간 이하로 보았다.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이방인들과 함께 무엇이든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러한 편견을 이해했다. 이 회심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소아시아의 이교적 풍습과 의식을 따랐던 사람들이다. 일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멀리 분리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 구절은 또한 바울이 골로새서 1:19-22절에서 사용했던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게 들린다. 바울은 거의 같은 시기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썼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이 두 서신서가 서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설명해준다. 또한 이 당시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슷한 이슈가 문제가 됐었다는 것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 본문해석

**2:11.** 옛 언약 아래서 할례는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구분 짓는 것이었다. 할례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육체적 표시였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무할례자' 이라고 불렀으며 반면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할례자' 라고 불렀다. 본질의 할례자라 칭하는 자들'의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소위 할례자라 불리는 자'라는 의미이다. 이는 바울이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무시한 유대인들의 태도에 찬성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진정한 의미의 할례는 외적 표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다(빌 3:2; 골 2:11). 바울은 이제 이러한 분리, 혹은 구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한다.

**2:12.**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취급한 것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실존 상태에도 있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들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그들이 부딪혔던 분리는 영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인 것이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자들인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의 과거가 가지고 있었던 위대함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을 숭배했고, 철학적인 진리를 추구했다. '하나님도 없이' (2:12)의 헬라어 '아데오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이다.<sup>4)</sup>

## "놀라운 다리" (2:13-16)

**2:13.**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현재의 상태와 그러기 전의 상태인 과거의 상태를 현저하게 비교해주는 말이다. 그들은 한 때 하나님을부터 떨어져 나가 있었지만 “이제는,”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기를, “가까워졌다” 고 한다. 이방인의 상태에 대한 이런 반전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이루어졌다(히 10:19-22).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의 피다(1:7; 롬 5:10; 골 1:20-22).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부인했었다.<sup>5)</sup>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으로 흘리신 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화해된 상태로 바뀐 것을

4) Francis Foulkes, *Ephesians*,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revised edition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and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88.

5) A.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 IV (Nashville: Broadman Press, 1931), 526.

강조했다. 이는 구약에서 유대교로의 개종으로 인해 생긴 반전과는 전혀 다르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누리던 것보다 더 큰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14.** 이 구절은 2:1-10절과 함께 2:11-22절의 병행구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비교한 후, 바울은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는지 계속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고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 분리된 자들을 하나가 되게 했고 평화를 나누어 주었다.

'평화'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구약의 'shalom'에서 유래한다. 'shalom'은 전쟁이나 적대 감정의 부재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총체적인 행복과 평안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절의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 감정의 종지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실마리는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

**2:15-16.** 그 관계에 있어서의 혁명적 변화는, 바울은 쓰기를, 적대감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적대감, 혹은 “증오”는 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교제로 바뀌어져야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파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했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극치의 희생이 구약의 제사 의식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어 화평하게 만드는(14절) 새 창조이다. '새 창조'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전혀 다른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이 목적하는 바는 죄로 인해 생긴 원수된 것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진술한다(롬 5:10; 고후 5:18-20; 골 1:20).

## "놀랄만한 결과" (2:17-22)

**2:17-18.** 바울은 이 구절에서 이사야 57:19절을 바꾸어 말했다. 본래 이사야 구절에서 이사야는 포로기 중에 있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에 여전히 남아 있던 나머지 유대인들의 상태를 비추기 위해 썼던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두 그룹 모두에게 - 이 구절의 문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 평화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동시에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신다(행 10:36; 고후 5:18-20).

하나님께서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요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10:7, 9; 14:6)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였던 옛 범주(範疇)는 폐지되었으며 그 결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2:19.** 이 구절은 전환점을 제공한다. 바울은 그가 이야기 해오던 것을 이 결론과 연결시켰다. 에베소 교인들은 더 이상 “외국사람”이나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이방인들이 소외받고 있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또한 그들의 바뀐 지위, 혹은 상태에 주목하도록 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2류 시민이 아니라,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은 또한 그들이

온전히 양자로 삼아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과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있다.

**2:20.** 앞에서 시민,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했던 바울은 다음으로 건축물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는 이 새로운 신자들이 새로운 건물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 새로운 건물, 즉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바울은 신자들이 자신들을 이 새로운 집을 이루는 벽돌로서 보기를 원했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기초로서 보기를 원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을 이 기초의 모퉁이 돌로 진술했다. 로버트슨은 이 구절을 “주춧돌 (the chief cornerstone)”로 번역했다. (시편 118:22; 행 4:11; 뵤전 2:7을 보라.) 성경 주석가 링컨 (Lincoln)은 여기서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주장한다 (엡 4:11을 보라).<sup>6)</sup>

**2:21-22.** 어떤 건축 프로젝트이든 단일화 된 계획들이 있어야 한다. 종합적인 계획들 없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가는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의 전체 건물이 “서로 연결 되어” 있다고 진술했다. 바울은 여기서 건축학적 단어 이미지를 사용했다. 조립할 수 있는 건축 자재가 없었던 1세기에는 각 건축 자재가 서로 잘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각 사람들이 서로 서로 잘 연결되는 것을 요구한다. 또 하나 떠오르는 그림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진술할 때 자주 사용했던 것인데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 혹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서로 함께 세워지기를 요구한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막을 준비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전을 준비하게 하셨고,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신자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우고 계셨고, 세우고 계신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 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라는 말을 사용했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반원들이 다음 질문들을 소리 내지 않고 0 와 X로 대답하도록 하라.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질문지와 연필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도 좋다.)

- \_\_\_ 내가 사는 동네는 인종차별이 하나의 이슈이다.
- \_\_\_ 나의 교회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장벽들이 있다.
- \_\_\_ 나의 가족 안에는 과거의 갈등 때문에 어떤 긴장감이 있다.
- \_\_\_ 나의 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괴리가 있다.

---

6) Lincoln, 152-153.

2. 반원들에게 말하라. 만일 그들이 위에 있는 항목 중 어떤 것에 0를 표시했다면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약간은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 씬의 필요는 분명하다.

## 학습인도

3. 반원 중 한 사람이 에베소서 2:11-12절을 소리 내서 읽게 하라. 질문하라, 바울에 따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기 전에 그들을 갈라 놓았던 것은 무엇인가?

4. 성전 안에 있었던 경계선들에 대해서 학습공과와 내용을 요약하라. 그리고 “계약” 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라.

5. 반원 중 한 사람이 13-16절을 읽게 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분리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고, 그 갈라진 사람들이 함께 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하도록 하라. 반원들이 대답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구절들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복습하도록 하라. 14절을 강조하라.

6. 17-22절을 읽어라. 이 구절에 의거해서 질문하라:

- ◆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 예수님은 누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 ◆ 누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 ◆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는가?
- ◆ 누가 주 안에서 자라가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7. 20-22절에 나오는 건축적 이미지들을 지적하고 설명하라. 이 구절에 따르면 교회가 얼마나 공사 중에 있는 건물과 가튼지 반원들이 말하도록 하라.

## 적용격려

8. 이 이야기를 하라: 수 년 동안 한 집 없는 청년은 아름다운 한 집의 뒷담 바깥에서 살았다. 그는 종종 사람들이 웃고, 노래하고, 다른 쪽의 정원에서 소풍을 즐기는 것을 들었다. 그가 담 너머로 보았을 때, 인자하게 생긴 한 신사를 보았고, 아이들은 그 신사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 청년은 나도 저런 가족에 속해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하곤 했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그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담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었다. 질문하라:

- ◆ 그 청년은 다른 쪽의 가족과 갈라지게 했던 벽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수 년이 걸렸다. 왜 그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는가?
- ◆ 다른 쪽에 있던 청년을 데리고 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는 어디로 들어올 수 있는가?

- ◆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뒷담은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는가?
- ◆ 때때로 장벽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장벽들은 무엇이 있는가?
- ◆ 당신이 오늘 읽었던 성경을 기억할 때, 누가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누가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 이 구절에 따르면, 보다 위대한 하나 됨과 평화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9. 하나님께 우리가 세운 장벽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평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b>[제 4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에 마음을 열라</b></p>
<p><b>핵심본문</b> 엡 3:14-21</p> <p><b>배경</b> 엡 3:1-21</p>	<p><b>학습주제</b>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b>탐구질문</b> 당신은 보다 위대한 영적인 강인함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p> <p><b>학습목표</b> 보다 위대한 영적인 강인함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갖고 계신 모든 것에 열려 있는 나 자신을 만들도록 한다.</p> <p><b>학습과 행동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명을 인도하는 권위임을 확신한다.</li> <li>- 성숙된 믿음을 발전시킨다.</li> <li>-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귀한 존재로 여긴다.</li> </ul>

## 성경 주해

### 배경 이해

이번과의 핵심 내용이 바울이 3:1-13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서 그의 체험을 진술한 이후 곧 이어진다. 이 전환적 구절에서 바울은 14절에서 끝을 맺은 그의 수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었다. 그는 간략하게 어떻게 이전 세대에서는 이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는 감추어진 신비였는지,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사명을 주셨는지 역사적인 교훈을 주었다. 한번 더, 바울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하여 유대인 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13절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당한 박해 때문에 몇몇 교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소식을 받았었기 때문에 3:1-21절에서 재차 확인하는 말들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동안 에베소서를 쓰고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복음으로 인해 당한 고난과 투옥을 언급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다.

이 구절은 또한 구체적으로 에베소 신자들을 향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방인 모든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마음을 전달해준다. 이것은 그가 에베소 교회, 그가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마도 3년 동안을 사역했던 교회에 대해 느끼고 있었던 따뜻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에베소 신자들을 뛰어넘어 모든 이방인 신자들을 향한 것이었다. 14-21절에 있는 그의 기도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전달해준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정말 그의 관심은 수 십 세기를 지나서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 본문해석

###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도 (3:14-16a)

**3:14.**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겸손을 드러내는 말로 기도를 시작했다. 아주 자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선 자세로 기도했다. 바울이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온전한 예배를 나타내준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과 '복종'을 의미하며 동시에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준다.

**3:15.**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앞서 언급한 구속론적 차원의 '아버지'(2:18)와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아버지'(9절)와 상관성을 갖는다. 구약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그것)를 존재케 하며 또한 그(그것)를 지배함을 가리킨다(시 147:4; 전 6:10; 사 40:26). 이것은 '아버지'가 각 족속의 창조자이며 주(主)이시며 모든 존재의 의미가 되심을 시사한다(Lincoln). '아버지'는 더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친근한 분'이다.

### 영정 강건함을 위한 3중 간구 (3:16-19)

**3:16.**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다음 진술에서 나오는 기도들을 들어주실 것을 기도했다. 이러한 기도들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바울은 진술했다.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광채와 능력을 모두 나타낸다. 본절에서 바울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속 사람'은 인간의 '영', '마음', '이성과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속 사람'은 '겉 사람' 즉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롬 7:22; 고후 4:16)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강건하다”는 것은 강하다, 혹은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말하면 이전에 그가 언급했던 (엡 1:19-20) 부활의 권능으로 강해지기를 갈망했다.

**3:17.** 바울은 다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했다.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문자적으로 “집처럼 편하게 지내다, 집에 거하다” 라는 의미로 번역된다.<sup>7)</sup> 바울이 언급했던 머물러 계심, 내주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어오신 영원한 거주이고 오늘날 믿음을 통해서 신자들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이다. 바울은 이 내주하심이 사랑 속에서 신자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다는 것을 더함으로써 이 개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믿음'과 연결짓는 반면에(골 1:23;2:7) 본절에서는 '사랑'과 연결짓는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토양으로서(Lincoln) 그리스도의 내주의 결과이다.

**3:18-19.**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기를 기도했다. 그는 그들이 그 사랑은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종류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 그는 이 사랑의 무한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은 로마서 8:35-39절을 떠올리게 한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끈을 수 없는 사랑을 묘사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풍요를 시사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 구속 사역을 암시한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사랑에 대한 지식, 이해력, 혹은 깨달음을 얻기를 기도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거의 모순에 빠지는 것 같지만 그가 기록한 것은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묘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드러내준다.

### 찬양의 송영 (3:20-21)

바울의 서전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처럼, 그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대하는 것의 막대함과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완전히 압도된다. 그는 이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찬양으로 마친다. 이 일은, 바울은 진술하기를, 그가 혹은 다른 누가 요구할 수 있는, 혹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중보 기도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드린 중보기도를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분임을 확신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실현시키실 것임을 시사한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은 이 일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에베소 신자들에게 이러한 권능과 영광은 -그리고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역시- 영원한이다. 이 전체의 중보기도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나타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7) A. 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 IV (Nashville: Broadman Press, 1931), 533.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 삶과의 연결

1. 질문하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있는가? 수 많은 관중 앞에서 트럼펫 독주를 하는 한 수줍은 10대를 그려보라. 키가 작은 것 같지만 팀을 위해 게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대학교 운동선수를 생각해보라. 깊은 슬픔을 겪은 사람을 기억해보라. 비록 당신은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 그녀가 종종 얼굴에 미소까지 띄어가며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라.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예들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는가?
2. 반원들의 반응을 들은 후, 학습목표를 언급하라.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다란 영적 강건함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라.

#### 학습인도

3. 칠판에 “바울의 자세” 라고 써라. 에베소서 3:14-15절을 읽어라.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에 필수적인 것인지 질문하라. 학습공과를 참조해서 기도 할 때의 다른 자세들을 언급하라.
4. “아버지” 와 “그의 온 가족” (새번역, 개역 모두 한국 성경에는 ‘각 족속’ 으로 번역됨)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라.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 신자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반원들에게 상기시켜라.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래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5. 칠판에 “바울의 기도” 라고 적어라. 16-19절을 큰 소리로 읽어라. 반원들이 이 구절들을 잘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도록 인도하라.
  - ◆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가요?
  - ◆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요?
  - ◆ 단순히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내적인 존재” 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가요?
  - ◆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 ◆ 다음 중 어떤 이미지가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박음” 혹은 사랑 안에서 “터를 잡음”? 왜 당신은 바울이 그 두 가지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가?
  - ◆ 어떤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가? 오직 유대인만? 오직 이방인만?
  - ◆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사랑은 얼마나 채울 수 있는가?
6. 반원들이 20-21절을 속으로 읽게 하라.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자신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들과 주요 단어들에 밑줄을 치도록 하라. 다 읽은 후에 반원들이 밑줄 친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 적용격려

7. 다음 글을 읽거나 이야기 하라: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다.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기였고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지중해 기후에 뜨거운 여름날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의 필요들을 계속해서 채우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영감을 받고 깊은 믿음 가운데서 그의 동료 신자들에게 그들이 “사랑 속에서 뿌리를 박고 터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들은 그가 강한 것처럼 강해질 수 있다. 당신은 영적으로 보다 강해지고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가? 에베소서 3:14-21절을 이번 주에 매일 읽는 것에 헌신하도록 하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 살아갈 힘과 사랑할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p><b>[제 5 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라</b></p>
<p><b>핵심본문</b> 엡 4:1-16</p> <p><b>배경</b> 엡 4:1-16</p>	<p><b>학습 주제</b>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p> <p><b>탐구 질문</b> 당신은 최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란 부분이 있는가?</p> <p><b>학습 목표</b>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도록 권면한 가치있는 삶을 묘사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낸다.</p>

## 성경 주해

### 배경 이해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두 개의 주요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전형적으로 바울의 서신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제공한다. 두 번째 부분은 그 신학에 대한 도덕적 실제적 적용들을 강조한다. 보통, 바울은 이러한 전환점을 “그러므로 (therefore 혹은 so then)” 라는 문장으로 표시한다. 이번 과의 본문은 그러한 전환적 구절이 나타난다.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와 같이 교회들에 편지를 쓸 때 주요 관심사였다. 그는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이 공격하기 위해 주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바울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은 모든 기회를 동원하여 그를 핍박했다. 그와 관련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한 때 매우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는 이유로 특별한 위협이 되었다. 바울은 또한 주어진 이방 다양한 이방 종교 때문에 기독교의 모습이 이방인들에 의해 오해를 사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활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작은 도덕적 잘못이 적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과 핍박의 빌미를 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 전환적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덕적 도전을 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을 강조하는 주제로부터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토론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바울은 교회의 생활은 하나 됨 속에 있는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 본문해석

###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영 (4:1-3)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서신의 첫 부분에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신학적인 주제를 적용하려는 의미의 전환하는 부분이 보인다. 바울은 자신을 “주님 안에서 갖힌 몸”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다른 말씀에서 (예를 들면 빌 1:27) 그는 규칙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거나 격려했다 (엡 4:1).

'합당하게' 에 원어로 볼 때 문자적으로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부르심'으로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을 통한 새 생명에의 초대이다(1:4, 5, 12, 13). 본절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신앙인의 고백과 실천 사이에는 항상 평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빌 1:27; 골 1:10 Lincoln).

본절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지녀야 할 구체적인 덕목들을 제시한다.

(1) 겸손 - 이것은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이다(빌 2:3). 당시 '겸손'은 비열한 마음과 노예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미덕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시는 모범을 통해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빌 2:6-11; 뱀전 5:5)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미덕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 온유 - 이것은 '이해심 깊음'이라는 말로서 '정중함'(gentleness)이라고도 번역된다. 이 미덕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며(고후 10:1) 성령의 열매로서(갈 5:22, 23)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중용'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덕성을 의미한다(약 3:3-8).

(3) 오래 참음 - 이것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롬 2:4; 9:22; 뱀전 3:20; 뱀후 3:15)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고전 13:4; 고후 6:6; 갈 5:22; 골 3:12),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이다.

(4)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본문은 앞서 언급한 '오래 참음'의 확대된 미덕이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단순히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나(골 3:13) 본절에서는 '사랑 가운데서'를 삽입한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랑'이다. 여기서의 '사랑'은 성령에 의해 공급되어지는(롬 5:5) 새 시대의 능력으로(고전 13장; 갈 5:14, 22),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은 자기희생적인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울은 또한 하나 됨의 생활 곧 일치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일치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수단은 '평안의 매는 줄'이다.

###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진리 (4:4-6)

**4:4.** 바울은 이 구절과 그 다음의 두 구절에서 기독교 믿음의 하나 됨에 대한 일련의 진술을 한다. 몸이 하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한 몸'을 의미한다. '한 몸'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뜻한다(1:23; 2:14-22). 이러한 '한 몸'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온전히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로서 통일성을 이룬다(고전 6:15; 10:17; 골 1:18).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부르심의 한 소망'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인들을 특별한 소망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여기서 '한 소망'은 '우주적 통일성'에 관한 소망을 가리킨다(1:9, 10). 이 '우주적 통일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구원의 목적으로서 이에 대한 소망은 교회를 통일시키고 화해를 이루게 한다. 그들이 같이 나누는 소망은 진실로 모든 신자들의 나눔은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상속”을 함께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다.<sup>8)</sup>

**4:5.**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가 일곱 겹으로 하나 된 것에 대한 묘사를 한다. 주도 하나라는 것은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롬 10:9; 14:8, 9; 고전 8:6; 12:3; 빌 2:9-11)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를 따르며 복종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교회는 한 통치자의 인도 하에 있으므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믿음도 하나라는 것은 개인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충성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의탁하는 것이다. 침례도 하나라는 것은 몸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외적인 표적으로 물 침례를 가리킨다. 이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성령의 인 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음을 시사하는 표시이다(1:13; 2:5, 6). 한 주를 믿는 한 신앙인임을 고백하는 공적인 의식인 세례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고전 12:13; 갈 3:27, 28). 침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체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sup>9)</sup>

**4:6.**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의 고백이다. 이 일곱 겹의 하나 됨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이게 된다. 온 우주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은 교회의 통일성을 위한 근거이시다. 오직 이 진술 안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교회는 그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은사 (4:7-11)

8) Francis Foulkes, *Ephesians*,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revised edition (Leicester, England: Inter-Varsity Press and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120.

9) Baptism symbolized the unity of experience that all shared. Foulkes, 121

**4.7.**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 됨의 주제에서 다양성의 주제로 옮긴다. 이런 은사의 다양성은 하나된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 성도들의 조화를 강화시키며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 됨을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한다.

**4.8-10.** 이 구절에서 바울은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주석했다.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시편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가로 간주한다. 본절은 시편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적한 자를 정복하신 후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에게 은사를 주심을 의미한다. 어떤 주석가들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축제 기간의 의식 중에 이 시편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바울은 의식적으로 이 시편을 기독교의 오순절을 표현하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했던 은사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11.**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직분들을 언급한다. 본절에 언급된 직분 중 세 직분 즉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는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사역했던 것인 반면 나머지 두 직분 곧 '목사'와 '교사'는 지역 교회에 국한된 직분들이다(Wood, Foulkes). 이러한 직분들에서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직분의 다양성이다(고전 12:5). 교회는 한 가지 직무나 은사만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성이나 은사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 됨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로, 직분의 통일성이다. 이러한 다양한 직분들은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영적인 유기체이다.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긴 자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외에 바울 자신과 바나바(행 14:14), 실라(살전 2:6)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를 증거 하였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중재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견해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교회를 훈계하기도 하였다(행 15:32).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의 차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주로 그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목사와 교사는 어떤 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치리하는 일을 하였다. 따라서 '목사'는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자이며 '교사'는 사도적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 하나님의 하나 되게하는 결과 (4:12-16)

**4:12.** 바울은 이 직분의 목적과 은사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쳤다. 그 직분들은 “성도들을 준비 시키기” 위해 존재했다. 이러한 직분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를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sup>10)</sup>

**4:13.** 이 구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들을 기록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울은 진술하기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전 구절에서 그는 하나 됨이 “한 주,

10) Lincoln, 249-252.



한 믿음, 한 침례” (4:4)을 통해서 온다고 주장했었다. 하나님의 은사가 사용될 때 “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됨이 일어난다. 바울은 두 번째 결과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 적용은 이러한 하나 됨 속에서 오는 하나님에 관한 개인적인 지식이다. 마침내, 모든 성도들은 성숙함으로 자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 됨으로서 일어난 결과는 “그리스도의 총만함”이다.

**4:14.** 그 다음 통일성의 결과는 바울은 진술하기를 이 그와 다른 신자들이 이 성숙함과 총만함 속에서 더 이상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된다. 영적 미숙아의 특징은 '흔들리는 것'이다. '흔들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클뤼도니조메노이'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나 거짓 교리에 대해 쉽게 넘어간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며(히 5:14) 어떤 거짓된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한편 '모든 교훈의 풍조'는 바울이 앞절에서 말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에 반대되는 모든 교훈을 의미한다(Lincoln, Bruce). 즉 바울은 영적 미숙아가 앞서 말한 거짓교사들의 사기와 교활함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

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가야 함을 권면한다.

**4:15-16.**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성숙함이 에베소 교인들과 현대의 신자들에 의해 3중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사랑은 진리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성도들은 또한 그리스도를 닮는데까지 자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지막 단계를 위한 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바울이 사용한 강력한 몸의 이미지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발견된 이미지와 비슷하다. 이 이미지의 힘은 특히 근대의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하다. 인간 몸의 모든 지체들은 어떤 임무를 완수해 내게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 삶과의 연결

1. 칠판에 탐구 질문 “당신은 최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란 부분이 있는가?” 를 써라. 반원들이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 질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반원 중 한 사람이 학습 공과의 학습주제를 읽게하라.

2. 이 유머에 대한 코멘트를 반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라: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동안 지금까지 좀 더 성숙해지는 계획을 짰었다. 질문하라,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에 도달한 적이 있는가?

**학습인도**

3. 반원들이 학습공과의 학습목표에 주목하도록 하라. 언급하라: 4장을 공부하기 전에 3:16-19절에 나오는 바울의 힘찬 기도를 돌아봅시다. 그 구절 읽어라.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하는 것들을 반원들이 찾아서 발표하도록 하라.

4. 반원 중 한 사람이 4:1-2절을 읽게 하라. 바울이 사용하는 “그러므로” 는 그가 다른 서신서들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내용의 전환을 표시하는 것을 지적하라. 인도자 지침서의 내용을 참조해서 강의를 이끌라. 칠판에 다음 내용을 써라.

동의어	반대말
겸손 온유 인내 사랑	

반원들이 왼쪽 칼럼에 있는 각 단어에 대한 동의어와 반대말을 생각해보도록 하라. 칠판에 반원들의 반응을 기록하라. 학습공과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라.

5. 4:3-6절을 읽어라. 언급하라: 바울은 에베소에 세워진 새 교회에 하나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4-6절에서 “하나” 라는 의미의 단어를 일곱 번이나 사용했다. 질문하라: 당신은 왜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다고 생각하는가?(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상태, 많은 사람들은 새 신자이거나 미숙한 성도들이었다) 질문하라: 오늘날의 문화권에서 이러한 것을 여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구절이 침례교회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6. 언급하라: 침례교의 핵심 신조 중의 하나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엡 2:8-9절을 보라). 하지만 우리는 “행위의 중요함” 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이것을 엡 2:10절과 4:11-12절에서 설명했다. 반원들이 11-12절을 침묵 가운데 읽게 하라. 교회 지도자의 4 종류가 무엇인지 말하게 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게 하라. 학습공과의 정보와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성경주해” 내용을 참조해서 그들의 대답에 첨가하라.

7. 교회 안에서의 하나 됨의 중요성을 간단한 강의를 하라. 반원 중 한 사람이 4:13-16절을 읽게하라. 질문하라: 읽은 말씀 중 당신에게 특별히 와 닿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묘사된 하나 됨은 강제로 될 수 있는가? 혹은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않은가?

**적용격려**

8. 교회를 세우는 은사의 사용과 토론을 위해서 다음 예화를 사용하도록 하라.

어떤 교회들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게 한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은 그 사람이 자기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재능이나 기술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교회의 어떤 사역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그것은 건물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데에까지 다양하다.

질문하라: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성경적인 것인가? 이 방식의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우리의 교회에 통할까? 어떤 식으로 우리는 영적 은사들을 서로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9. 학습공과에 나오는 학습주제와 들어가기를 반원들이 참조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몇 명의 자원들이 다른 반원들에게 그 의미를 요약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질문하라, 바울이 이 본문에서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10.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역 교회의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b>[제 6과]</b></p>	<p><b>인도를 따라감</b></p>
<p><b>핵심본문</b> 에베소서 4:17-5:2, 11-16</p> <p><b>배경</b> 에베소서 4:17- 5:20</p>	<p><b>학습주제</b>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p> <p><b>탐구질문</b> 자유로운 오늘날의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우리가 배운 크리스천의 행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p> <p><b>학습목표</b> 이번 과에서 공부할 내용이 나의 삶에 가장 큰 도전을 심어주며, 그렇게 실천할 것을 다짐 하자.</p>

## 성경 주해

### 배경 이해

바울은 교회의 하나 됨과 또한 하나님의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 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초기의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원했다. 2장에서 바울은 신학적인 바탕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해 구별하였다. 4장 초반에, 바울은 이 구별이 낳는 결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성경 주해 학자 도날드 구트레 (Donald Guthrie)는 바울이 묘사한 것을 가리켜 “선한 분노” 라고 지칭했다. 바울은 이 “선한 분노”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교회 생활에 관하여 지시해 주길 원한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4:23-24절에서 “옛 사람” 과 “새 사람” 을 비교하였다. 크리스천의 윤리적인 행동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울은 박해와 도덕적인 유혹이 찾아 왔을 때, 크리스천으로써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원했다. 그는 신약 성서 시대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의 생활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중요한 점은, 이 개념에 대하여 바울은 새롭게 얘기 한 것이 아니란 점이다. 구약 시대와 율법 학의 전통은, 어린 시절부터 바울에게 거룩히 구별된 나라, 이스라엘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항상 강조해 왔다. 바울이 그의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요점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크리스천 교회 바탕에서 이 거룩함의 우선순위를 되찾길 원했던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관습과 법으로써의 행동들을 해석하는 전통적 유대인의 방법이 아닌, 바울은 크리스천으로써의 행해야 할 길에 대해 말하기 원했던 점이다. 바울은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 이슈에 대해 접근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또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 본문 해석

###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 (4:1-24)

4:17.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의 삶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그만 둘 것은 에베소에 있는 그의 독자들에게 권고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삶의 길로 계속 따라가는 것은, 결국 무익한 것임을 설명했다. 바울이 사용한 “무익함”의 단어는 또한 “공허함”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구절에서 어두운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이는 이방인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4:18. 이 선한 노여움과 공허함은 결코 지식이 부족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지와……. 지각이 어두워지고.” “지각”이라는 단어는 “사고” 또는 “생각”으로도 번역될 수 있겠다. 그리스 구약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종종 마음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어둡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울은 또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갈라놓는 “무지”라고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이 무지는 완고한 마음을 낳는다. 완고한 마음은 우리에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를 생각나게 한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졌으며, 결국에는 파멸로 이르게 된 결과를 낳았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됨은 2:12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4:19. 바울은 계속해서 마음이 완고해 짐에 대해 설명하기 원했다. 바울은 마음이 완고해 짐을 “굳어진”, 돌과 같이 딱딱한, 심지어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은 죄를 지음을 무감각하게 느끼게 한다. 그들의 타락의 깊이는 부도덕함을 직면했을 때 알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몸을 방탕에 내맡기기도 한다. 바울은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묘사할 단어를 아끼었다.

4:20. 선한 분노에 관하여 바울이 택한 해결책은 이 구절에 나와 있다.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같은 달랠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은 윤리를 배웠다. 바울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바울은 어떠한 생활의 방식이 단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4:22. 22절은 바울이 쓴 편지 중,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다. 바울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제쳐 놓아야 한다고 기록했다.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 버림, 또는 오래된 생활 습관을 제쳐 놓으라고 말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허망한 욕정을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4:23-24. 바울은 로마서 12장과 골로새서 3장에 기록한 것과 같이 비슷한 전문적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했다. 침례 신학자인 A.T. Robertson은, 바울이 사용한

“새롭게” 라는 의미는 “어리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23절에서 바울이 기록한 영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영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단순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독자들에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룩하심을 닦아야 한다. 아무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닦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옛 사람이 걸던 길과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이다.

##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 드리는 크리스천들 (4:25-32)

4:25. 이 구절에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했다. 크리스천들은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려야 한다. 바울이 말했던 크리스천들이 벗어 버려야 하는 옛 습관 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동기가 단순히 믿는 자들로서 하지 말아야 하며 정직하며 거룩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써 믿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마치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다.

어떤 사소한 것들은 부정직한 것보다 더욱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게 한다. 진실과 신뢰는 함께 가는 것이다.

4:26-27. 크리스천들도 화가 남을 바울은 인정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습성이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권고했다. 화가 나면 그 순간에 끝내라고 하는 것이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이다. 신학자 Robertson은 분노가 “안정된 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4:28.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버려야 하는 옛 습관 중 다른 하나인 도둑질 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했다. 도둑질은 빌린 것을 되돌려 주지 않거나 아무 대가 없이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해 드리는 크리스천들은 양심적으로 노력하며 수고하여야 한다. 남의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남에게 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줄 알아야 한다.

4:29. 크리스천들이 버려야 하는 옛 습관 중 다른 하나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지 않은 말과 나쁜 말을 내뱉는 것이다. 말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크리스천들은 바른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울이 기록한 크리스천들이 사용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말”이란 악마의 말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들은 부패하고 썩는 느낌을 들게 한다. 바울은 새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에만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4:30-32. 이 권면들의 절정은 30절에 묘사되어 있다. 계속하여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독자들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크리스천들은 용서할 줄 아는 인정 많은 마음씨를 가진 자라고 알기를 원했다.

바울은 31절에서 여섯 가지 분노에 대해 다루었다. 본질적으로 그는 26절에서 말한 분노에 대해 다시 얘기

하고 있다. 28-29절에 설명한 옛 습관들은 분노의 절정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

첫째로 바울은 “악독”에 대해 다뤘다. 이는 남을 신경질 나게 하고, 불쾌감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악독”은 “걱정”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 걱정을 지닌 사람들을 그들 마음의 악독이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걱정은 악독이며, 분노는 그 불을 지피게 한다.

셋째로, 여기서 표현된 “분노”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태를 대표하거나, 또는 순간에 일어났던 감정을 대표할 수도 있다. 넷째로, “소란”은 우리의 삶에서 노여움으로부터 오는 결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대표한다. 이것은 자기 안에서 표출되는 노여움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점은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크리스천들은 그 소란의 습성에 대해 이해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로, “욕설”은 거짓을 퍼뜨리거나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진실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 관하여 해를 입히는 말을 하는 것이다. “욕설”은 여섯 번째로 바울이 묘사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모든 악의”와 함께 이어진다. 악독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죄를 짓는 과정에 들어서며, 교회생활이 분열되며 삶이 처참히 망가질 때까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옛 습관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묘사하였다. 그 치료법은 바로 용서라는 것이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했다. 친절함은 악독과 걱정을 막는 예방책이다. 불쌍히 여기는 뜻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열린 마음을 뜻한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상처 받았을 때에 같이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많은 시간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잔혹하게 판단했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었다. 여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연결 되어 있다. 용서함은 마지못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용서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방책인 것이다. 용서함은 31절에서 유행이 되어버리는 모든 악의를 예방하는 행동이며 태도이다.

## 하나님을 본받기 (5:1-2)

5:1. 자녀들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부모를 본받는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흉내내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흉내 내기를 장려했다. 크리스천들은 끊임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5:2. 바울은 2절에서 언약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신약 성경은 언약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에 중점을 맞추었다. 바울도 또한 구약 시대의 언약의 옛 기억에 잠시 잠겼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기록했다. 이 표현은 아마도 구약 시대 성전 제사 관례를 보는 것과 맞는 것에 익숙했던 독자들을 다시 기억 시켜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을 더욱 강조하기(5:11-16)

5:11-13. 이 구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루었다.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 것을 권고했다. 계속하여 5:3-7절은 악의 대해 나열하였다. 만약 에베소에 있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의 길로 걷기 원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어두움의 참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빛은 어두움을 정복한다. 만약 빛이 믿는 자들의 삶을 나타낸다면, 어두움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드러남”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어두움의 일에 같이 하지 말 것을, 그런 일에 대해 얘기 하는 것을 거절할 것을 권고했다. 이 구절은 새로운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예수님이 쓰셨던 말에 대해 상기 시켜 준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두움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드러날 것이다.

5:14-16. 14절 전반 부분은 이사야 26:19절에서 인용된 것이다. 이 구절들은 미국 침례교 찬송가에 한 부분으로 수록 되어 있기도 하다.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14절처럼 변화를 경험한다면,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취 것이라고 기록했다.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믿는 자들은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으로써 말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강의와 질문들

#### 삶과의 연결:

1. 칠판에 “삶을 사는 가르침”이라고 적자.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과 십대들에게 주의를 주며 가르칠 때가 언제인지 학생들에게 질문해 보자. 학생 자신은 언제 부모님의 훈계와 충고를 들었는지도 떠올려 보게 하자. 몇 가지를 칠판에 나열 해 보자. (예 : “길을 건너기 전에는 반드시 주위를 먼저 살피렴.” “먹기 전에는 꼭 손을 닦아야 한단다.” )

2. 모두가 절망적이거나 유머스러운 경험을 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도 사도 바울이 설명한 변화된 삶보다 중요하게 여길 만한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들어보도록 하자.

오늘 우리의 학습 목표는 몇 가지 도전이 되는 가르침들을 아는 것과, 그 가르침대로 주의 해서 행동할 것을 결심하는 것이다.



**학습인도**

3. 에베소서 4:17-19절을 읽게 하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는 분명하게 비교됨을 강조하자. 다음의 질문들을 살펴보자.

- “허망한 생각?”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 무지와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세 가지 설명이란 무엇인가? (4: 18- 19)
- 어떤 면에서 이 행동들은 지금까지 존재하는가?

학생용 공과를 요약해 보자. 필요하다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를 참고해도 좋다.

4. 에베소서 4:20-24절을 읽자. 옛 사람, 더러움, 새 사람, 깨끗함, 변화됨 - 이 단어들에 대해 시각화하여 생각 해 보자.

5. 다음의 실화를 들려주자 : 구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 어느 교실에서 학생들은 그들이 회심한 경험과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누고 있었다. 어느 주일 새롭게 회심한 어린 청소년은 그 나눔에 기쁘게 참여하기 원했지만 마땅히 말할 적절한 단어를 찾기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환희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경험은……. 와우!” 이렇게 질문해 보자 : 구원 받은 경험은 다양할 지라도, 크리스천들은 삶에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변화를?

6. 학생용 공과에 처음 시작 부분을 인용하자. 바울이 열거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자.

7. 에베소서 4:25-5:3절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게 하자. 학생들에게 그들이 발견한 가장 도전이 되는 두세 가지를 주의 깊게 듣도록 하라. 함께 나누자.

또한 5:1-2절에 나타난 과정을 요약해 보자.

8. 각자 에베소서 5:7-11, 15-16절을 조용하게 묵상하도록 하자. “빛”과 “어둠”을 강조하자.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자.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5과에서 공부한 것이 16절에 어떻게 연관되어 나와 있는가?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자.)

**적용격려**

9. 학생용 공과에 나온 “하나님을 본받음”이라는 짧은 글을 읽자. 저자의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 후 에베소서 5:1 절을 읽어 보라. 칠판에 수평선을 하나 긋자. 왼쪽부터 1로 시작하여 가장오른쪽에는 10을 적도록 하라. 그 선 위에, “하나님을 본받는 나의 모습”이라고 적어 본 후 다음을 생각해 보자. 오늘의 공부를 토대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기억하자. 오늘 공부를 바탕으로 당신의 그래프의 지점을 옮길 수 있는, 당신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생각해 보자.

<p><b>[제 7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b></p>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에베소서 5:21-6:4</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에베소서 5:21-6:9</p>	<p><b>학습주제</b>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며 질서 있게 세워져야 한다.</p> <p><b>탐구질문</b> 크리스천의 믿음은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p> <p><b>학습목표</b> 가족 관계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질서 있게 세워진다면, 어떤 다른 결과를 낳을지 생각해 보자.</p>

## 성경 주해

### 배경 이해

신약 시대의 교회들은 가정 안에 존재하는 교회들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가정 교회들의 총집합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이 가정 교회의 올바른 역할로 교회의 삶을 혼란하게 하거나, 분열되게 하지 않았어야 함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었다. 만약 가정의 내부 분열이 발생한다면, 교회는 영향을 받아 분열 되거나 파괴 될 수도 있는 환경이 발생 할 수 있음이었다. 또한 교회 멤버가 가정의 문제에 개입하여 교회의 상황을 바꾸는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가족 모두가 각자의 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교회의 평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달시키지 않았다면, 가정 안에서 모임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며, 성경 공부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새로운 운동으로, 크리스천들은 종종 박해 받거나, 비판을 받으며, 그들이 쫓는 참된 진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질문 받았을 것이다. 몇몇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지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의심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사회적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랐던 것일까? 그들은 이방 세계의 자연적 질서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을까? 바울은 에베소의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근본적 다른 점을 따라, 가족적 삶을 사는 모범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바울은 가족들은 우리가 존재하는데 중대한 구성원이 됨을 인식하였다. 사람들이 무엇이 되기 전에,

직장을 갖거나, 휴가를 보내거나, 삶의 휴식을 취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취미 생활을 가지거나 하기 이전에, 모든 인간들은 가족적인 사람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그들의 가족 관계를 세우는 것을 돕는 것임을 이해하였다. 그는 이 이슈에 대하여 모두에게 설명하기를 원했다.

인간의 자연적 습성을 이해했던 바울은, 사람들이 그들과 가장 친밀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인간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족의 삶의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자들과 함께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나간 세기에서, 에베소서 6:4절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은 노예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종들은 일 세기의 가족을 이루는 한 부분이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종들을 방어하고 있음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일세기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갈라디아서 3:28절과 빌레몬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하게 보임 같이, 바울은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될 것을 바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본문 해석

### 모두를 위한 도전 (5:21)

바울은 구체적인 도전을 지니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길 원했다. 이 구절은 크리스천들을 위한 일반적 원칙에서 크리스천 가정을 향한 구체적이며 특별한 지시를 주는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바울은 복종의 중요성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만, 경쟁, 그리고 권위에 대한 의심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핵심은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이 서로 유순하게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복종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였다. 대부분 그가 이 단어를 사용했음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해야하는가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구절과 다른 구절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성경 주석가 프란시스 폴크스 (Francis Foulkes) 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크리스천 관계 안에는 나이와, 성별과, 지위나, 또는 아무런 분별에 상관없이, 반드시 서로를 섬기고자 하며, 누구에게 에서든지 배우며, 누구에게 에서든지 바르게 함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서 2:5-11절에 기록한 것과 스스로 종의 모습을 지니신 예수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 얘기하고 있는 바는 반드시 이 과도적인 구절의 배경과 반대되었음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남편과 아내를 위한 도전들 (5:22-32)

5:22.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족은 매우 익숙한 주제였던 것 같다. B. C. 약 300년 전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 까지, 그리스 철학자들과 교사들은 가족의 본분과 의무에 대해 종종 묘사하곤

했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가족이란 주제는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초대 교회의 장소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크리스천 가정의 관계에 대하여 골로새서 3:18-4:1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베드로전서 2:18-3:7절을 보라)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며 서두를 이끌어내었다. 22절에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그들의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바는 이 구절 앞의 내용과, 바울의 일반적인 사상이 가르치고 있는 점은(갈라디아서 3:28절에 나타난) 바로 모든 신자들의 평등함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동사 “순종하다” 라는 말은 그리스 원어 본문에 나타나지 않으나, 에베소서 5:21절에서 분사구로 쓰여 졌다고 추측된다.

바울은 또한 자연 세계의 질서, 즉 남편을 가장의 자리에 세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또한 자연적 원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평등이라는 우산 아래 서로간의 순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후의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아내의 의무는 바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다.

5:23-24. 바울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 라고 지칭하며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교하였다. 여기서 “머리” 라는 의미는 지배자나 근원이라는 말이 아니다. 남편을 아내의 근원이나 머리가 된다고 부름은 몇몇 해석 가들이 제시한 바와 같은 창조적 이야기의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이 구절들은 또한 남편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 바울은 아내들이 기꺼이, 또한 그렇게 순종해야 할 것을 암시했는데 이는 남편이 그녀를 위해서 감수하는 희생 때문이다.

이 구절들은 바울이 기록한 모든 기록 중에 가장 문제가 될 요지의 한 부분으로 다뤄진다. 그러나 21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좀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교회 멤버들은 서로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5:25.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남편들에게 더욱 큰 도전을 제안하였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부장권” 이 존재하였다. 아버지에게는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아버지께 절대적인 충성과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했다. 이러한 형태로 가족의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과 아버지께 순종해야 했으니 이것은 아버지와 남편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바였다. 이러한 질서에도 예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어머니가 가정을 다스릴 때였다. 아내들은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은 후계자가 되며 때로는 가사를 돕기도 하였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집안의 모든 노예들을 포함하여, 가정의 모든 자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

바울은 전 구절에서 로마 시대의 질서에 대해 인정하면서, 전체적 개념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바울이 말했던 크리스천 남편들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었다. 바울은 크리스천 남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였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 할 줄 알아야 한다.

5:26-27. 25절 하반부에서 바울이 말했던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 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깨끗케 하는 성화의 과정을 보여줌을 확장하여 말하였다. 이 깨끗케 함은 교회를

“그의 순결한 신부”로 표현함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낸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 됨을 유사하게 설명하였다.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으로 바울은 앞전의 서신서에서 이미 하나 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5:28-30.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준 후에, 바울은 자연적인 유추를 이끌어 내었다. 그는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다. 그러나 어떤 남편들은 그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관하여 긍정적인 자긍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의 아내를 올바르게 못한 방법으로 대우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한 번 다음을 떠올려 보자. 우리가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나아가서 모든 복음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그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점이다. 만약 하나님이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각각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침례 신학자인 A.T. Robertson은 이 성경구절을 가리켜 “결혼 생활의 가장 훌륭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말했다.

5:31. 바울은 이 구절에서 창세기 2:24절을 인용했다. 성경 주석가인 Foulkes는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일부다처제, 성적인 문란, 그리고 이혼에 관해 반박하기 위해 쓰여 졌다고 제시했다. 그 아무런 것도 왜 교회가 그토록 결혼 생활의 독특한 고결함을 주장했는지 이 성경구절 보다 더욱 잘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크리스천 가정이 이혼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것보다 교회에 관하여 더 아픔을 느끼며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이 구절은 부부간의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결혼 사역을 감당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

5:32-33.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고 말했다. Robertson은 바울이 결혼생활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교함이 비밀이 된다고 이 성경구절을 해석한다. 이 구절을 바라보는 다른 각도는, 이 비교가 완전하지 않으며 또는 완벽하지 않은 비교라는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비교에 너무 얽매어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의 생각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그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했던 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상기 시켜 주고 있다. 그것은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며,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도전들 (6:1-4)

6:1. 바울이 다음으로 언급했던 관계는 바로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관계였다.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의 법은 바로 부모님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가 죽게 하거나 또는 노예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결정권을 가졌었다. 또한 아버지는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 범죄를 행할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도 생각해야 했다. 이 책임과 강력한 힘은 아버지가 죽기까지 지속되는 것이었다. 만약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어 재혼을 한다면, 또는 일부다처제나, 간음, 또는 이혼으로 인해 다양한 가정들이 존재된다면, 이 권력은 또한 그 모든 관계에 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했다.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Robertson은 이것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해석한다.

6:2-3. 바울은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을 인용하며 그의 생각을 뒷받침하였지만, 중요한 점은 이 계명이 바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다. 이 약속은 계명을 지키에 따라 이득도 함께 따라 간다는 것이다.

6:4. 바울은 다시 한 번 전통적인 가르침의 규율을 깨버렸다. 그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크리스천 아버지들을 구별하였다. 크리스천 아버지들은 더 높은 기준이 따른다. 강철과 같은 막강한 권력으로 자녀들을 다스렸던 배경을 뒤로 하고, 바울은 크리스천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중요하게 기억할 점은 바울은 이 전에 다스릴 수 없는 노여움의 위험에 대해 강조한 적이 있다. 바울은 노여움이 시작되기 전에 아예 피하기를 원했다. Robertson은 바울의 지시는 “아버지들의 일반적인 죄”를 다루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대신에, 바울은 말하기를 아버지들의 “훈련과 훈계”가 “주님 안에”서 이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자녀들을 훈련과 훈계로 길러야 한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 삶과의 연결

1. 요즘 시대의 많은 가정이 깨지는 이혼, 가족 간의 잦은 다툼들, 부모와 자녀간의 불화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의 관계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원리를 살펴보며 함께 공부하였다. 학생용 공과의 주제를 다시 읽어 보자.

#### 학습인도 :

2. 다음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 개요이다. 칠판에 적고 다시 한 번 복습하자.

#### 가족 관계들

- A. 1세기의 가족 관계
- B. 에베소서 5:21절에서 나타난 관계들의 기본
- C. 에베소서 5:22-28,33절에 나타난 남편/아내 관계
- D. 에베소서 6:1-4절에 나타난 자녀/부모님 관계들
- E. 생활의 적용

3. 학생용 공과의 “1세기의 가족들”을 참고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자. 또한 인도자 지침서의 본문 이해하기를 참고 해도 좋다. 질문: 오늘날의 가족들은 무엇이 다른가? 1세기의 가족들이 직면했던 문제 가운데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4. 에베소서 5:21절을 각각 다른 버전으로 읽어 보자. 질문: “순종”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만약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을 경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학생용 공과의 “모든 크리스천 관계들의 바탕”을 참고하여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다양한 학습활동 5번을 참고해도 좋다.

5. 누군가를 지명하여 에베소서 5:22-28절을 읽도록 하자.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자. 결혼 생활을 책임지는 자는 누구인가? 기혼이던 미혼이던, 우리는 모두 남편들과 아내들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종종 지배와 역할들에 관한 이슈에 분투하고 있다. 학생용 공과의 “남편들과 아내들” 제목 아래 세 번째와 네 번째 단락을 읽도록 하자. 질문: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상호간의 순종”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6. 모두가 5:25-28절을 다시 읽도록 하자. 그 후 학생용 공과의 “사랑”의 관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아가페 사랑이란 25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을 말한다. 질문: 이런 사랑이 크리스천들에게도 가능할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답들을 들어본 후, 학생용 공과의 “남편들과 아내들” 부분의 4번째 단락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2번의 포인트 C에 간단하게 요약해도 좋다.

7. 누군가에게 에베소서 6:1-4절을 읽도록 하자. 2-3절은 출애굽기 20:12절과 신명기 5:16절에서 발췌된 것이다. “부모님께 순종함”과 “노엽게 하지 말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며, 생각을 나눠 보자. 질문: 상호간의 순종이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 될 수 있을까? (자녀의 생각을 귀 담아 듣기, 공경하기 등)

### 적용격려

8. 학생용 공과의 질문 4번을 이용하자. 질문: 오늘의 공부에 근거하여 만약 모든 가족 관계들이 그리스도를 존경하듯 서로를 대한다면, 어떤 다른 결과들이 나올까? 자유롭게 나눠보자. 나눈 것들을 2번의 “생활의 적용” 부분에 적어도 좋다.

9. 학생용 공과의 주제를 다시 한 번 읽은 후, 기도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 하자.

<p><b>[제 8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봄</b></p>
<p><b>핵심본문</b> 빌립보서 1:12-14, 19-26</p> <p><b>배경</b> 빌립보서 1:1-26</p>	<p><b>학습주제</b> 영원한 삶을 바라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며,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p> <p><b>탐구질문</b> 인생에 최고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p> <p><b>학습목표</b> 바울의 경험과 같이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p>

## 성경 주해

### 배경 이해

내가 알고 있던 학생들 중에 성경을 매우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의 대부분은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를 익히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꽤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서에 쓰여 있는 많은 구절의 성경을 암송하기도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해도 적어도 빌립보서 4:13절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빌립보서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다는 바는 인도자의 역할을 더 쉽고도 동시에 어렵게 만든다. 빌립보서를 가르침은 예레미야 애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쉬운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인도자는 학생들에게 빌립보서의 감사의 지식을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준비하며 능숙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를 공부함에 있어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서신서가 쓰였던 배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갑자기 하늘나라의 금 쟁반 위에서 툭 하고 떨어지거나 시간을 왜곡 하며 쓰인 것이 아닌 역사의 흐름 속에 쓰인 빌립보서, 빌립보서가 쓰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전개 되었을까? 문맥상의 전후관계를 잘 살펴봄에 이해해간다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울은 사랑이 넘치며 상호간 진행되고 있던 그리스도 안의 관계와, 그리스 북부 도시의 위치했던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경험을 얘기하며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 (빌립보서 1:5, 7-8) 빌립보의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사도행전 16:12).” 바울은 기원전 40년 말에 빌립보를 방문했으며 빌립보 성도들을 만났다. 그로부터 빌립보 성도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후원했음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1:5, 19; 4:1-16). 그들은 또한 가장 최근에 빌립보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의 돕는 자로 보내기도 했다(2:25-30; 4:10, 14, 18).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시기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였다(1:7, 13-14, 17). 그 결과로 에베소 감옥의 있을 때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성경 해석들이 따른다.

바울이 투옥되었던 정확한 지리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세 곳은 에베소, 가이사라, 그리고 로마 지역이다. 현대의 몇몇 학자들은 기원전 50년 중반의 에베소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수는 기원전 50년 말의 가이사라 지방에서 적었을 것이라고 반문한다.) 그렇지만 가장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은 바울이 기원전 60년 초기에 로마의 투옥 되었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1:13절의 “친위대”와 4:22절의 “가이사라 집사람들”의 언급으로 보아 바울이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썼다는 주장이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 되고 있다.

바울은 감금에 대하여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변치 않을 것을 기쁨으로 당부하였다. 또한 그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 (3:14)을 좇아 모델이 되는 자로 살 것을 명령하였다.

## 본문 해석

### 복음의 진보 (1:12-14)

1:12.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며 (1:1-11)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꾀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격려하고 위로 하였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비록 사랑하는 사도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다. 바울이 나누고자 했던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서 나가신 좋은 소식 이었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들렸을 지도 모르겠으나, 바울은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은(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 복음이 전파하는 것을 막는 행동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1:13-14절에서 그의 경이한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1:13-14. 실제적인 첫 번째 예로 바울은 가이사라 친위병과 “모든 사람들” (아마도 다른 군인들과 법정 관계인들)이 바울이 예수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진보를 가져다 준 것을 뜻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갇혀있던 도시의 사는 믿음의 성도들의 대다수는 바울의 갇힌 사실로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소식이었다. 반대로 바울의

결속됨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속했을 경우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들의 보복의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감금의 결과로 느슨해진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그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14절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음과 동시에 15-18절은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한다. 아마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들을 대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파된 다는 것에 기뻐하였다. 바울은 동정함이나 사소한 것에 관점을 둔 자가 아니었다. 바울의 주된 생각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고린도서 2:2)

### 기쁨과 소망 (1:19-20)

1:19. 고통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가 빌립보의 성도들과 주 안에서 단절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1:19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으로 그가 풀려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어에서 “풀려남(deliverance)” 이란 단어는 구원(salvation)으로 해석 될 수 있다(soteria). 바울이 여기서 명시한 “풀려난다.” 는 말은 그의 감금에서나 혹은 겹으로부터 혹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서 자유 해져서 영원한 상급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다양한 해석들이 논의된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9절을 통해 바울이 그의 궁극적인 풀려남에 대한 확신을 보였으며(욥기 13:16절을 보라), 그의 상황에서 즉시 일어날 일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생각한다.

1:20. 바울은 가까운 미래든지 최종적인 미래든지 열정과 기대, 소망,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미래의 삶을 살 것이라고 담대히 말했다. 고린도후서 5: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의 모든 삶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다.

### 삶 그리고 죽음 (1:21-24)

1:21. 1:20절에서 그의 삶으로나 죽음을 통해 간절히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했던 바울은 1:21절에서 확고히 말한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문맥의 구성과 내용, 리듬적인 자연스러움으로 보아(그리스어에서도) 혹시 이 구절이 바울이 선교의 삶을 사는데 중추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지표가 되지는 않았었는지 궁금했었다. 어쨌거나 이 유명한 구절은 사도들의 마음에 중요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우리는 바울에게 어찌 선한 양심으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라고 떳떳이 고백할 수 있냐고 물어 보기 원할지 모른다. 그랬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로마서 8:10; 골로새서 3:4절을 보라) 그 스스로가 완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데 완전한 열정으로 헌신되었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열망했었다. (빌립보서 3:7-16절 참고)

우리는 바울에게 어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 물어 보기 원할지 모른다.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1:23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나으냐” 라고 덧붙였다. 살면서 바울이 원했던 바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었고 죽으면서 바울이 기대했던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1:22-24. 바울의 소망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3), 그는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세상을 떠남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바울은 강한 영적인 책임감을 느낀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 맺기를 원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기 원했다.

설득력 없는 몇몇 소수 학자들의 미미한 주장에 따라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문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바울은 로마시민으로서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을 다음의 시편기자와 같이 진술하고 싶었을 것이다. “내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로 돌리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시편 31:15-16)”

바울의 바람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바람을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포기할 의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의를 표하는 생각은 바울이 선포하고 모델로 삼기 원했던 복음의 한 부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빌립보서 2:3-8절 참조)

## 남은 것과 돌아가는 것 (1:25-26)

바울이 더 원했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생각 하면서 동시에, 바울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하나 될 소망을 품고 있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처한 상황이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는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이었고 이것은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할 만하게 했다. 게다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할 때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2:17-18절을 보라) 바울에게는 복음의 진보가 기쁨의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1:12, 18-19절을 다시 참조하라)

바울은 또한 감금으로부터 풀려나서 교인들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소망하였는데 이는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 있는 많은 “자랑”을 거두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가 빌립보로 돌아왔을 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을 예측 하였다. (2:11; 4:19절을 보라)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 삶과의 연결

1. 질문: 당신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에 대해 묻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삶에 있어 무엇이 가장 당신을 기쁘게 만듭니까?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라.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인데 (매우 짧은데) 당신으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라.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본 것과 같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그가 생각했던 바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 학습인도 :

2.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잡지나 책이나 인터넷으로부터 밤하늘의 광경을 스크랩해 놓자. 만약 사진을 찾을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만 해도 좋다. 오늘 우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보는 별들의 몇몇은 지구로부터 수억 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빛을 내고 있다. 이 작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늘과 영원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과연 소중한 존재일 수 있을까? 질문의 답변들을 기다리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아볼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하늘과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다음의 아웃라인을 칠판에 적도록 하자.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기  
빌립보서 1:12-26

- 1)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동안에 확장된 복음의 진보 (1:12-14)
- 2)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원했던 바울 (1:19-21)
- 3) 그리스도만을 삶의 모든 중점에 모셨던 바울의 노력 (1:21-26)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말하기 원했던 위의 아웃라인을 읽어보자.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자 하는 깊은 소망이 있었음을 학생들에게 알게 하자.

3.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칠판에 적어보자. (경제적인 부분, 건강 문제, 직장, 가족의 성공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친구의 구원, 친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 세계적인 이슈 등)

현대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눠보자. 나눠 본 후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까?

위에서 열거한 것들을 잘 보이는 곳에 두어라.

4. 학생용 공과 서론부분의 마지막 두 문단을 바탕으로 빌립보서에게 관해 간단하게 소개하자. 아웃라인에 소개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꼭 잡고 넘어가자. 포인트를 설명할 때 학생 한명에게 성경 구절을 읽게 하자. 21절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라는 부분을 읽을 때 강조하고 넘어가자. 특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앞에 나온 “나에게는”의 특별한 의미를 두어야 한다. “나에게는”이란 단어는 삶에 관한 나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장하여 생각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바울의 삶의 모든 관점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었다. 당신의 삶에 관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매일의 삶에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5. 학생용 공과의 짧은 글인 “죽음에 관한 그리스로마인의 관점들”을 읽고 간단하게 요약하여 보자.

6. 21절의 대한 간단한 강의를 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특히 타르수스 출신의 그리스로마 사람이었던 바울은 죽음에 관하여 바울의 동시대의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졌던 것을 꼭 기억하자.

### 적용격려

7. 학생용 공과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자. 학생들에게 모든 질문들을 답해보도록 한 후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초점이 삶에 관한 그의 관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보다 더 비중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8.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전체적인 삶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만약 당신의 친한 친구나 친척에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그들은 과연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당신에게 말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9.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우리의 순간의 결정들이 이 땅에서의 욕심을 위해서만이 아닌, 우리가 영원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겪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기도하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끝났을 때 천국에서 우리를 환히 맞아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p><b>[제 9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예수님의 삶을 따라감</b></p>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빌립보서 2:1-11</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빌립보서 1:27-2:18</p>	<p><b>학습주제</b> 예수님의 주권아래 우리의 인생을 살아 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p> <p><b>탐구질문</b> 겸손하게 사는 것이 왜 그렇게도 어려울까?</p> <p><b>학습목표</b> 예수님의 삶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자.</p>

## 성경 주해

### 배경 이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다(빌립보서 1:7, 13-14, 17절 참고).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하나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빌립보서 1:19, 26, 2:24절 참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만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하지 않았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던지 떨어져 있던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길” 바란 것이다(1:27).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워야 함을 의미했다(1:27).

다른 지체들과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믿지 않는 자과의 관계는 더욱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빌립보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대립들을 경험했다. 성도들은 그런 대립에서 물러나거나 피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었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1:28-30절, 사도행전 16:16-40을 참고하라)

바울의 부재와 대적하는 자들과의 문제들 이외에도, 성도들 안에서도 분명한 내부 분쟁이

존재했다(빌립보서 4:2-3절을 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 되고 겸손할 것을 권고했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좇기 보다는, 본래는 부요하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와(고린도후서 8:9)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2:5절).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빌립보서 2:6-8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겸손이란 옷을 입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

빌립보서 2:5-11절에서 예수그리스도 안의 겸손과 충실을 모델삼아, 바울은 2:12-18절에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 또한 2:14-16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2:17-18절에서는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희생이 따를지라도 함께 기뻐할 것을 권고했다. 그 후 바울은 이름 없이, 희생적으로, 용기를 돋워 주었던 복음의 성기는 자인 디모데(2:19-24)와 에바브로디도(2:25-30)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길 원했다. 우리는 3장에서 바울 또한 그러했음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해석

### 그리스도 안의 하나 됨 (2:1-2)

바울이 묘사하는 빌립보서 1:27-30절의 나타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은 고달프고, 힘들며, 역경을 겪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렇지만 그는 서로가 격려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지시하였다. 2: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추구하고 힘쓸 것을 재차 강조하며 반복하여 말했다.

2:2절의 간절한 부탁의 근거하여 바울은 2: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다섯 가지 지침을 열거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격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의 향기를 인식 할 수 있었고, 더불어 성도로서 “동정심과 자비”를 갖춰야 할 것을 알 수 있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적 믿음의 기초와 기대를 나타내며 2:2절에서 바울은 그에게 기쁨을 넘치게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의 만족과 복음의 근거하여 성도들은 어떻게 그에게 완전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2:2절에 따르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바울의 기쁨을 넘치게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간절히 바란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바울의 서신서는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 4:2-3절을 살펴보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한 한 면모를 바울의 권면을 통해 알 수 있다. 4:2절에서 사도는 유오디아와(좋은 길이라는 뜻) 순두게라(행운이라는 뜻) 불리는 두 명의 빌립보 여인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바울은 그의 복음의 동역자로 간주한 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합할 것을 부탁한 것이다.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됨을 성도와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들의 분열은 매우 심각하여서 바울은 서신서를 보내며 다른 성도들에게 이 두 명의 여인들을 도와주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가 됨 (2:3-4)

우리가 만약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는 아마 우리에게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 주었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말했든지 간에 결국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겸손과 서로를 향한 진심어린 보살핌이었을 것이다.

3: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라고 권고하며 시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4절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 시를 통하여 전하는 겸손한 그리스도를 본받기 바라는 권고(2:5-11)

2:5. 바울은 2:5절에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바울은 2:5-11절에서 성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것을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쓸 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서로 힘써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갖추어야 했던 것이다.

2:6-8. 2:6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더욱 구체화 하여 설명하며 성도들에게 그러한 겸손과 성실을 보일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도바울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2:6-11절을 바울이 서신서를 썼을 당시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불렀던 찬송가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글의 형식이나 어휘로 보나 찬송가라고 불렀다는 주장은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인다. 확실성이 거의 희박하긴 하지만 나는 이 부분을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누가 이 구절을 지었던 간에, 우리의 포커스는 다름 아닌 빌립보서 안에서 이 맥락이 쓰인 해석에 두면 될 것이다.

2:6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신성한 위치의 신분과 지위를 지니셨지만 마땅히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과 특권과 영원한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반면에 2:7절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가 가지신 권력의 특권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약하고 힘없는 한계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2:6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과는 달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신” 방법으로(갈라디아서 4:4) “종의 모습” 을 취하고(2:7절)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8:9절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예수님의 행동은 2:8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른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겸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찾아 볼 수 있다.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아름다운 성스런 모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원전 일 세기의 로마 제국 당시에는 십자가를 사형제도에 쓰는 도구로 생각하였다. 십자가는 특히 소문나게 위험했던 범죄자, 비열하고 괴상했던 자들의 운명이 다하는 곳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광의 예수님은 고대 로마 사회의 찌꺼기 존재라고 여겨졌던 자들을 위해 그들이 당해야 할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었다. 십자가의 관한 광대한 관점의 그의 설명은 고린도전서 1:18-2:5절에서 나타나고 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그리스 인들에게는 바보 같은 행동으로 비춰졌을지라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9-11.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빌립보서 2:6-7) 하나님께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을지라도(2:8) 그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으셨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2:9). 그것은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사 그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다(로마서 8:34; 골로새서 3:1절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이 이름을 무엇이라 하는가? 모든 위에 뛰어나시고 그 외에 다른 이름은 없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있는 (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 모든 사람과 모든 능력들( “모든 무릎” 과 “모든 방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라고 고백함이 마땅하다(이사야 45:23절을 보라). 믿는 자들의 입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고백은(로마서 10:9; 고린도전서 12:3절 참고) 영광의 주님을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신성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던 (고린도 전서 2:8; 고린도후서 4:4절을 보라)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준다(빌립보서 2:9-10). 이 고백은 또한 고대 제국 시대의 슬로건이었던 “황제가 주(主)이다” 를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을 가지며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했던 모든 자들의 주장들을 반박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과 동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소명을 받는 것과 같다는 바울의 예리한 목상을 깨닫게 해 준다. 또한 이전의 특권들을 버릴 줄 알며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들을 수반한다. 이러한 흔치 않은 행동들은 단순히 성도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생각과 믿음의 정신인 것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 삶과의 연결

1. 다음의 질문을 칠판에 적은 후 학생들에게 질문하며 수업을 시작해 보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변들을 들어 보자,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며 동시에 가장 겸손하신 분이셨다는 것이다.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마태복음 11:29). 다음의 질문을 하자, 예수님의 온유함이 약함이라고 간주되어 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생각들을 들어보자, 학생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인류를 위해 믿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겸손을 지니시고 고통을 체험하셨음을 상기시켜 주자, 다른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최상의 힘을 보이는 것이다! 오늘 이 과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욱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살아 갈 수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 학습인도 :

2. 그의 서신서 에서 바울이 어떻게 교회의 하나 됨에 초점을 주었는지 살펴보자, 다음의 질문을 하자: 당신은 하나 됨을 무엇이라 정의 내리겠습니까? 빌립보서 2:1-4절을 읽자, 기억할 점은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 됨을 유지하라고 장려했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랐던 네 가지 부분의 하나 됨에 대하여 찾아보도록 하자, 학생들의 답변들을 들어보자, (학생용 공과의 “하나 될 것을 권면함”을 참고하자) 바울은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뜻과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랐다(2:2). 하나 됨이란 여러 가지 태도들과 목적들 안에서의 조화라고 정의를 내려도 좋다.

학생 한 명을 지명하여 5-8절을 읽도록 시키자. 학생용 공과를 참조하여 이 구절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한 후,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죽음은 깊은 겸손의 행실과 같았음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자. 8절의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의 부분에서 바울은 왜 그리 강한 강렬함을 표현했던 것일까? (학생용 공과의 참고 부분의 “수치스런 십자가” 를 참조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가장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음을 강조하자.

자기 자신을 낮추어 완전한 겸손을 보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 이러한 겸손은, 혹은 자신을 비우는 것, 크리스천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궁극적인 예시가 된다.

3. 다음의 질문을 하자.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고 명령했던 바울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까(2:5)? 답변들을 들어 본 후, 그리스도는 최고의 겸손과 희생적 태도를 지니셨음을 단언하자. 예수님의 그러한 자세는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하늘의 기쁨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을 가능케 했다. 오직 겸손하고 희생적인 태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을 가능케 한다. 궁극적으로, 9-11절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의 자녀들이 살았던 겸손과 희생적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적용격려

4. 학생용 공과의 질문들을 살펴보아라. 학생들이 본문의 초점을 생각하며 질문에 답하도록 격려하자.

5. 오늘 배운 공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일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 즉 자신을 비움으로 인생의 시련과 성공을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 본보기를 보여준다. 우리는 매일 겪는 모든 상황들에서 겸손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다음의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 질문해보자.

-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 험담을 할 때
- 교회 성도들이 분쟁의 조짐을 보이며 서로에게 동의하며 존중하지 않을 때
- 누군가가 위로를 필요로 할 때
- 내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가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각 상황 마다 시간을 두어서 모두의 생각들을 들어보도록 하자.

6. 이 과에서 배운 요점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 본 후 기도로 수업을 마치자.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며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p><b>[제 10과]</b></p>	<p><b>가장 높은 목표를 추구함</b></p>
<p><b>핵심본문</b> 빌립보서 3:1-14</p> <p><b>배경</b> 빌립보서 3:1-14</p>	<p><b>학습주제</b> 신실하고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삶의 가장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그분을 닮아 가는 것이다.</p> <p><b>탐구질문</b> 당신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표란 무엇인가?</p> <p><b>학습목표</b>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내 삶의 목표를 다시 한 번 확립하도록 하자.</p>

## 성경 주해

### 배경 이해

빌립보서 1:9-1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들이 풍부한 지식을 갖으며 통찰력을 지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만약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영적인 가치들과 미덕들을 배웠어야 했다. 또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지시들을 가르쳤던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예들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가장 훌륭한 모델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빌립보서 2:5-11). 그는 겸손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다.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이 보여주었던 긍정적인 모델들은 빌립보서 앞의 두 장에서 이름이 언급되었던 디모데(2:19-24), 에바브로디도 (2:25-30), 그리고 바울 자신을 포함한다(1:21,30절을 보라). 또한 그는 11장과 2장에서 성도들을 위해 영적 모델로 삼지 말아야 할 특정한 자들을 언급하였다 (1:15, 17, 28; 2:21절을 보라). 서신서 나중 부분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의 하라고 당부하는 자들이 나오며 (3:18-19절), 또한 그는 유오디아와 순두에게도 그들의 증거와 영향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간곡하고 있다 (4:1-2).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영적 민감함과 책임들을 강화시키며 아름답게 빛어 나가고자 했던 그의 믿음의 순례의 여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바울은 3:2절에서 성도들에게 몇몇 대적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였다. 바울은 그가 살아왔던 영적인 인생에 대해 성도들에게 권유한 후에 대적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3:4-6절을 보라.) 그렇지만 빌립보서 전반에서 바울은 이 글을 읽는 그의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완전히 알아가고 좇기 원하는 그의 열정을 알아주길 원했다. 이는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좇기 원했던 자의 간증이 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바울의 믿음의 인생은 잃었다가 찾았으며, 구했으며 얻은 인생이었다. 바울이 마태복음 13:46절에 나오는 값진 진주를 찾은 자를 발견했을 때,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가 되길 너무나도 바랐다 (빌립보서 3:9절). 바울이 기록한 성경 어디에도 빌립보서 3장만큼 예수 그리스도 옆에 꼭 달라붙은 바울의 모습을 찾아보거나 표현하는 구절을 찾아 볼 수 없다.

## 본문해석

### 변화의 과정, 그리고 반복함 (3:1)

2:19-30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소개한 이후로, 바울은 3:1절에서 다른 주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잠정적으로 해를 끼칠 만한 자들과 그들의 이론을 주의 하라는 경고를 주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재차 명했다 (1:18, 25; 2:2, 17, 18, 19, 28, 29; 4:1, 4, 10절 참고).

게다가 바울은 예전에도 그의 서신 서에 기록한 적이 있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함이 결코 성가시게 지켜야 할 의무에 지나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얘기를 재차 강조함으로 그들의 삶의 안전한 테두리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 바울의 대적 자들과 과거 (3:2-6)

3:2. 이 구절에서 바울은 매우 경계해야 하는 세 종류의 유대교 기독교인 선전자들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다.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대적 자들이라고 여겼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들” “악한 일꾼들” “살을 잘라내는 자들”을 각별히 조심할 것을 경고 하고 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의 행동과 사상을 매우 혐오 하였으며,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을 “절단자” (katatome, 무엇을 잘라내다 라는 뜻)라고 여기며, 바울은 그들을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peritome, 주위를 잘라내다 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이는 갈라디아에서 그를 좇았던 자들과는 같지 않는, 유대교 기독교인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법과 할례를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갈라디아서 5:2-12절을 참고하라).

바울이 그나마 점잖은 태도로 그들을 강하게 부인하며 “개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던 말), “악한 일꾼들” (고린도후서 11:12-15절을 참조하라) 이라고 불렀다.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이러한 침입자들은 그들의 사상을 도입시키기 위해 성도들을 돕는 척 하였으나 실상은 성도들을 타락하는 길로 이끌었다. 사도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변절되어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길 바랐기에 그들에게 미리 경고한 것이다.

3:3-4. 유대교 기독교도들에 맞서 바울은 3:3절에서 그와 빌립보 성도들은(또한 율법에서 자유한 복음을 믿는 자들도) “할례” 받았음을 담대하게 옹호했다. 로마서 2:29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바울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 영적으로 변화되어, 율법적 흔적이 되는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이 참된 할례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맞서 싸운 것이다 (고린도전서 7:19; 갈라디아서 6:15절 참조)

3: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할례” 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3:3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세 부류를 나중에 교회가 삼위일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또한 바울이 사용한 “육신” (그리스어로 *sarx*)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종종 가치를 두거나 갖기 원하는 주목할 만하며, 혈통을 지니며, 특권과, 업적이라는 뜻을 내포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인간의 업적과 성취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4절에서 자신을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한 자라고 표현했다. 사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이유로 그 자신에게 신뢰를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더욱 신뢰를 둘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3:5-6.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유대교의 근거한 일곱 가지 그의 지위와 성공을 나열했다. (바울은 일곱 가지 사항을 나타냄으로 과거 자신이 유대인이었던 시절에 가졌던 완벽함을 암시하기 원했을 지도 모르겠다) 3:5절에서 바울은 그의 선한 출생과 유대인으로 자라난 네 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다. 그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었다 (창세기 17:9-14; 레위기 12:3; 누가복음 2:21절을 보라). 게다가 그는 히브리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다. 더욱이 그는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도 사울에게서 본 딴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행전 13:9절 참조) 바울은 사실 자신을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언어적 능력의 지식이 뛰어나며 유창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1:40; 22:2-3절 참조).

계속해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주목할 만한 그의 세 가지 성취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는 율법을 중시했으며 강경히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사도행전 23:6절을 보라), 하나님과 율법을 향한 그의 열성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의 수를 다 없애버리려 했을 만큼 열정적이었다. (고린도전서 15:9; 갈라디아서 1:13, 23; 사도행전 8:3; 9:1, 21; 22:4; 26:10-11절을 보라) 마지막으로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던 사람” 이라고 말한다.

### 그리스도를 아는 측량할 수 없는 가치 (3:7-11)

3:7-8. 유대교에서 매우 화려했던 바울의 혈통과 명성들과 그가 자연스럽게 “가지고 ” 있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롭게 여겼다(그리스 동사에서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3:7).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으므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던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위해 그의 삶을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그밖에 모든 것들을 잃은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 그가 버린 것들을 다시 생각하며 아까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버린 “오물”로 여겼다. (3:8)

3:9-11. 간단히 말해서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발견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한 결과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을 통해 얻을 의를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에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3:9) 오는 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도 동참하며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아는 것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본받기 원했으며, 그리스도에 의해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어 했다 (3:10-11; 3:21절을 보라).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좇음 (3:12-14)

3:12. 가끔 바울을 비난하는 대적들은 그를 일컬어 교만한 자라고 비난했지만 이 구절은 바울이 그가 자랑하고 자만할 만큼 무엇인가를 다 끝내지 않았다고 여겼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만하는 것이 아닌, 그는 도리어 그가 완벽에 이르지 못했음을 순수하게 고백하고 있다. 바울의 영적인 이 고백은 그의 단념과 체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욱 열정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3:20-21; 로마서 8:29절을 보라).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자 했던 바울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의 믿음으로부터 근거했는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께 단단히 매였다는 바를 명백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했던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으셨다는 그의 깊은 통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13-14. 3:13절에서 바울은 3:12절에서 그가 말했던 바를 되풀이 하고 있는데, 그는 아직 영적으로 목표점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포커스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완전하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첫 번째이자 단 한 가지 우선순위는 (3:13절의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를 주목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었다. (3:14절) 위엿 것을 추구하고 전진하기 위해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전진하기 원했던 것이다.

바울이 그의 과거의 실패와 성공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했을 것이며 또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자들과(그 자신을 포함하여) 믿지 않는 그의 유대인 동족들 사이에는 분명한 갭이 있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고린도전서 15:9; 갈라디아서 1:13-14; 로마서 9:1-5절을 참고하라). 그렇지만 과거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리스도를 좇는 현재의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 삶과의 연결

1. 다음의 주제로 짧은 토론을 펼쳐보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십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행동 하나 하나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점은 그리스천인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는 점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들은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간단히 토론을 벌여보자.

그리스천의 삶이란 가장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 가장 높은 목표의 습성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 학습인도 :

2. 학생 중 한명에게 빌립보서 3:2, 18-19절을 읽도록 하자. 나머지 학생들은 빌립보의 존재했던 거짓 선생들과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잘 귀담아 듣도록 하자. 성경을 다 읽은 후에,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 보도록 하자.

학생 중 한명에게 빌립보서 3:7-14절을 읽도록 하자. 나머지 학생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자.

빌립보서 3:9절을 읽으며 특히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라는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포인트를 잘 되새겨 보자. 바울은, 거짓 선생들과는 다르게, 그의 가치관이나 그 스스로의 의를 가르치지 않았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파하며 가르쳤던 것이다.

3. 3:7-11절을 읽자. 학생들에게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가 몇 번이나 언급되었는지 새보도록 하자 ( “그리스도” 혹은 대명사로 표시된 “그분” “그의” 라는 단어도 다 포함하자). 학생들의 대답들을 들어보자. (정답은 8번이다) 질문. 그리스도를 앞으로써 바울이 누렸던 이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특히 11절을 잘 살펴보자) 신학자들은 종종 바울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았다고 명시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이거나, 자기 자신 중심이었거나, 혹은 윤리 중심이었다고 말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짐을 보여준다. 바울은 그에 인생에서 그리스도만이 그의 모든 필요가 되신다고 여겼다!

다음과 같이 묻자.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에서 그의 핵심 가치로 여겼을까요? 아마 몇몇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지 모른다. “바울은 천국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며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더욱 그분을 알기 원했다.

4. 10절을 읽자. 학생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기 원했음을 다시 한 번 일러주자. 바울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나타내었다. (1)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2)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바울은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굳세고 깊은 헌신이 있었다.

5. 바울은 그리스도와 “완전한” (성숙한) 친밀함을 가지길 깊이 소망했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3:12, 14). 성숙하기 이전에 바울이 겪어야 했던 과정들이 있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3:13-14절을 읽으며 학생들에게 바울의 목표와 목표에 도달하기 전 겪어야 했던 과정들을 잘 살펴보게 하자. 성경을 읽은 후 학생들의 생각을 간단히 들어보자.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적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이나 이뤘던 성취, 업적들을 모두 “잊어버려야” 함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 “달려가야” 함을 꼭 기억하자. 영적인 성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우리 스스로의 의를 추구했던 삶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과정을 겪게 한다.

### 적용격려

6. 학생들에게 본문의 근거하여 학생용 공과의 질문들을 잘 살펴보게 하자.

7. 스스로의 의를 좇지 않을 것을 고무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무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

8. 크리스천으로써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들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같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대답들을 들어본 후 다음의 질문을 던지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체험한다면 우리의 결혼생활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자유롭게 나눠보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 까지도 본받길 원하며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자.

9. 질문. 당신의 삶의 목표는 바울이 가졌던 목표와 어떻게 다른니까? 어떤 것이 더 고차원 적인가요? 학생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립하도록 격려하자. 기도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자.

<p><b>[제 11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주 안에서 기뻐하라</b></p>
<p><b>핵심본문</b> 빌 4:4-20</p> <p><b>배경</b> 빌 4:4-20</p>	<p><b>학습주제</b>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p> <p><b>탐구질문</b> 우리는 어떻게 더욱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p> <p><b>학습목표</b>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p>

## 성경 주해

### 배경 이해

바울의 빌립보서 4장은 빌립보에 있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미천한 몸” 을 그들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킬 때까지 (빌 3:21, 또한 1:27절도 보라)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는 또한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빌 4:1, 또한 살전 2:19-20을 보라) 이라고 진술한다.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이러한 훈계는 바울이 4:1-9절에서 회중들에게 간곡히 타일렀던 몇 마디 말들 중의 하나이다.

이번 수업은 서신의 거의 끝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 시작은 4:4절에서 시작하고 4:20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이전에도 가리켰던 것처럼 4:4-9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곡히 타일렀던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된다. 사실, 이 여섯 개의 구절에서 최소한 7개의 명령어를 발견하게 된다. 그 다음에, 4:10-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곤란 가운데 있는” 그에게 보내 준 선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 (4:14, 또한 1:5; 2:25-30절을 보라).

4:1-9절에서 교회에 다양한 권면들을 하고, 4:10-20절에서 감사를 표한 후에, 바울은 4:21-23절에서 간단한 맺음 인사를 첨가하고 (21-22), 은혜의 말을 한 뒤(4:23) 서신을 마친다. 최소한 두 개의 흥미로운 것들이 빌립보서 결론에서 보이고 있다.

우선, 4:21절에서 바울은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하라고 교훈한다. 내가 아는 한 이것은 바울이 ‘신자 (saint)’ 라는 단어를 단수로 쓴 유일한 곳이다. (보통 그는 1:1절과 4:22절에서 처럼 성도 (saints) 라는 집합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가 여기에서 그렇게 쓴 이유는 물론 짐작이지만, 그의 서신이 빌립보에 있는 각각의 신자에게 교훈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황제의 집안에 속한” “성도” 에 관한 바울의 부가적 인사이다 (4:22). 1:13절의 “친위대” 에서도 그랬듯이, 바울이 황제의 집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로마에 있는 사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더군다나, 복음이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을 것이다.

## 본문해석

###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기 (4:4-7)

4:4. 유오디아와 순두게, 그리고 무명의 한 신자를 4:2-3절에서 훈계 한 후, 바울은 다시 4:4절에서 전체 회중에게 교훈한다 (4:1절을 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시 한 번 회중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고 가르친다 (3:1을 보라).

바울은 서신 전체에 걸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을 자주 했다. 바울은 실제로 본 서신을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투옥(投獄)되어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1:14, 17, 20-23).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먼저 기뻐하는 생활을 나타냈다(2:17).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고난과 감옥 생활 중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것처럼 기뻐한 것(행 16:19-25)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Calvin). '주 안에서'는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충분한 근거가 되신다.

4:5. 기뻐하는 것에 더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라고 권면한다. “관용” (에피에이케스)은 심지어 화가 날지라도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며 온유와 인내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신 초반부에서 바울은 교회가 겸손함으로 행동하고 서로를 돌아보도록 권면했었다 (2:3-4). 여기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온유와 겸손과 경의를 가지고 대하도록 격려하고 있다(2:14-16절을 보라, 롬 12:16-18; 살전 5:15).

이러한 훈계를 따르는 것이 더욱 쉽지 않은 것은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逼迫)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바울은 성도들이 관용의 태도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와 오는 것을 믿는 이상 모든 핍박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려고 권면하고 있다(약 5:7-9).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법으로 '염려를 중단하라'는 뜻이다(Robertson). 이는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 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이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이다. '기도'의 헬라어 '프로슈케'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나타내며 '간구'의 헬라어 '데에세이'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뜻한다. 한편 '감사함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 유카리스트티아스'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요소로서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타낸다 (Meyer).

하나님의 평화는 (7절) 인간 스스로 만들어 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세상의 평화와 확연히 구별된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완전 하기 때문이다.

‘지켜 줄 것이다’ 는 원어적 의미로 '호위하리라'는 의미로 군대 용어이다. 이것은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준다.

###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4:8-9)

**4:8.** 바울은 성도들이 언제나 도덕적, 영적으로 탁월하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다. 특히 본절에서는 성도들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여덟 가지 덕목들이 열거되고 있다.

“참된 것” 은 허위와 상반된 개념으로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며(롬 3:4) 믿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경건한 것” 은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는데, 이 말은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옳은 것” 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이다. “정결한 것” 은 도덕적인 정숙함을 강조하며 엄격한 의미의 순결(純潔)을 강조하는 말이다. “사랑스러운 ” 은 신약성경을 통틀어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로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는 뜻이다. “칭찬할 만한 것” 은 역시 본절에만 나오는 단어로써 '정중한', '고상한', '우아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덕” 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뜻한다. “명예로운 것” 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4:9.** 교제시의 행동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갈망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4:9절에서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 하라고 연결시켰다. 만일 이 언급이 현대의 독자에게 너무 자만심이 있는 듯 보인다면, 다음을 고려하라; (1)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였고, 목회자였다. 그리고 수 년 동안 의미 있는 상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2) 바울은 모방하는 것이 흔하던 시대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하나의 모델로서 제공한 것이다; (3) 더군다나,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청한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고전 11:1을 보라).

## 염려하는 회중과 만족해하는 바울 (4:10-14)

**4:10, 14.** 그의 편지를 마무리 하면서 바울은 다른 것을 하나 더 언급하기 원했다, 즉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사절단이 그에게 보낸 선물에 관한 것이었다 (빌 2:25-30).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의 배후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고상한 정신을 더욱 귀중히 여겨 칭찬하고 있다.

**4:11-13.** 바울은 그가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4:10절에서 가리키고 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곤경 가운데 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신의 주된 관심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있었으므로 외적 여건에 초연하여 자족할 수 있었다 (4:11).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 계셔서 역사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다.

## 복음 안에서 오래 지속된 동역의식과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4:15-20)

**4:15-18.**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자기에게 보내준 선물을 “향기”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이라고 했다.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임을 느끼게 해준 그들의 가장 최근의 표현으로서, 사도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고맙게도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았다 (4:18).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이 사랑의 선물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는 시작점이 되었을 것이다(4:15-16). 하지만 그들의 선물에 대해 고마워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사도된 그를 향한 변함없는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더욱 감사했다. 사실, 바울은 그에 대한 그들의 선물을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 라고 여겼다 (4:17).

**4:19-20.** 하나님께서 시간이 있었고, 또 다시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가운데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 이라고 확언한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필요를 은혜롭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그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탄의 외침 속에서도 보인다, “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신학과 송영은 함께 간다. 이것이 당신에게도 사실이기를 기원한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 삶과의 연결

1. 이번 수업을 인도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당신, 혹은 당신이 잘 아는 사람이 인생의 환란의 시기에 잘 견디어 냈는지, 오히려 그 기간에 평안 가운데서 있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준비하라. 수업이 시작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라.

빌립보서 4:4절을 읽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의 시기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갈망했다고 진술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라. 우리의 삶은 항상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시기도 찾아온다는 것을 반원들에게 상기시켜라.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그런 기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 말하라, 오늘의 수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커다란 기쁨 가운데서 살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 학습인도

2. 오늘 본문의 아웃라인을 다음과 칠판에 붙이거나 써라.

- (1) 참된 기쁨은 드러난다 (4:4-7)
- (2) 참된 기쁨은 목적이 있다 (4:8-9)
- (3) 참된 기쁨은 만족한다 (4:10-13)
- (4) 참된 기쁨은 나누게 된다 (4:14-20)

본문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언급하도록 하라.

3. 반원 중 한 사람이 빌립보서 4:4-7절을 읽게 하라. 다 읽은 후에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교제에 있어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라. 또한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는 적합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4장 4절에서만 두 번이나 말이다.
4. 질문하라, 왜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했다고 믿는가? 반원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계속 질문하라, 당신은 바울이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세상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믿는가? 대답할 시간을 주라. 비록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헛된 것이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라.

5. 학습공과에 나오는 4:6-7의 주해를 참조하라. 바울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필요와 염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라. 질문하라, 왜 당신은 바울이 간구하라고 명령하자마자 감사하라고 명령했다고 믿는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라. “보호하는 하늘 능력의 역사”로서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점을 지적하라 (학습공과에서 “참된 기쁨은 드러난다” 제목이 붙은 내용을 참조하라).
6. 반원 중 한 사람이 4:8-9절을 읽게 하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은 항상 편안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사명에 있도록 우리를 진정시키고 격려한다는 것을 강조하라. 바울이 기록한 다양한 덕목들과 행동들을 토론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찬양할만한 덕목들과 행동들을 10가지 고를 수 있도록 반원들에게 요구하라. (예를 든다면, 죄들에 대한 용서, 구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돌보심 등.)
7. 반원 중 한 사람이 4:10-20절을 읽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격려해주는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라. 성경을 다 읽은 후, 반원들에게 대답할 시간을 주라. 13절은 종종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 해석된다는 점을 지적하라. 하지만 13절을 이해하기 위한 문맥은 12절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어떤 것을 성공시키는 능력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능력을 진술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각각의 반원들에게 일반적으로 불만족하게 느끼게 하는 인생의 환란을 대면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토론의 시간을 가지라.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 임을 가리키라 (4:19). 질문하라, 때때로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놀리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확언은 당신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8. 학습공과에 나오는 질문을 참조하라. 반원들이 오늘 본문에 맞추어 각각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 적용격려

9. 반원들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라 (4:4). 반원들이 이번 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풍성한 것들”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격려하라. 각각의 반원들이 이러한 목록을 그가, 혹은 그녀가 그의 필요와 염려들을 놓고 기도할 때 활용하도록 제시하라.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b>[제 12과]</b></p>	<p><b>그리스도의 주권을 찬양</b></p>
<p><b>핵심본문</b> 골 1:15-23</p> <p><b>배경</b> 골 1:1-23</p>	<p><b>학습주제</b> 그리스도는 창조물과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본체이다.</p> <p><b>탐구질문</b>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많은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주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p> <p><b>학습목표</b> 그리스도의 주권을 깨닫고 나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할 수 있다.</p>

## 성경 주해

### 배경 이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쓴 또 하나의 “옥중서신”이다. 골로새서 3--4장은 에베소서 4--6장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 5-7과에서 에베소에 있는 본문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골로새서 1--2장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수업은 골로새서 1장이다.

바울의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개인의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 (빌레몬 1-2, 23-24과 골 1:7; 4:7-18절을 비교하라). 에바브라는 바울이 두 서신에서 언급했던 사람들 중의 한 명이다. 이것은 60년대 초기 로마에 죄수로 잡혀있을 때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빌 23 과 골 1:7; 4:12-13절을 보라).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진술한 것을 토대로 할 때,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아마도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도 에바브라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다. 또한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었던 영적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모두 에바브라를 통해서였다는 것이다.

소아시아 남서부 라오디게아 동쪽 부르기아도리고 강변에 위치해 있었다.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서남쪽에 있던 성읍.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와 함께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동서 교통의 요지로, 한때 번영을



누렸으나 신약시대에는 쇠퇴하였다. 비록 바울이 직접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1:4, 2:1을 보라), 그는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 (고후 11:28절을 보라). 이 교회를 향한 그의 지속적인 마음은 그가 에바브라를 통해 교회의 교제에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더욱 커지게 되었다. 교회 안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과 관습들을 더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퀘변가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주장중 많은 것들이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골 2:4, 8, 16, 21을 보라).

주된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유들 중의 하나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에 은밀히 잠입한 소위 “철학자” 들을 대적하라고 말한 것이다.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강건함에 위협이 될 것으로 간파된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이 “철학자” 를 따르는 자들에게 먼저 주목하기 전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에 주목하게 했다 (1:13). 진정 바울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보인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두움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들을 옮기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또한 그는 그들이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회고하기를 원했다 (1:13-14).

빌립보서 2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학자들은 골로새서 1:15-20절은 초대 기독교 교회의 찬송으로 간주한다.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서신에서 그것을 사용했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학자들은 그 이 구절의 스타일, 구조, 요지에 주목한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골로새서에서 이 구절의 기능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2:8) 에베소 공동체를 노획물로 삼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 본문해석

###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1:15-18a)

1:15.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 진술을 해주고 있다. 첫 째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고후 4:4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복음서에 의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고 했고 예수 자신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 14:9)고 선언하기도 하셨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라는 것이다. 이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리우스(Arius A.D. 256-336)는 본절을 근거로 그리스도도 피조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문은 결코 그렇게 이해될 수 없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본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요 1:1, 2 ; 8:58 ; 히 1-3 ; 10:5-9). 본문이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 만물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였고 그런 만큼 만물에 대한 우월성을 갖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1:16.** 15절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16절에서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원인이자 목적이다. 모든 피조물은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며 그를 향하고 있다(요 1:3 ; 히 1:2).

예수님의 주권과 창조적 활동의 범위와 스케일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골 1:16절은 세 가지의 부가적인 짝들을 첨가하는데, 소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가 그것이다 (롬 8:38-39; 엡 1:20-21절을 보라). 16절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 되었다고 결론을 짓는다. 골 1:16절은 예수님을 창조자와 창조의 방향, 창조의 목적과 근원을 제시하고 주장한다.

**1:17.** 이는 다소 철학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일의 원리이며 모든 창조물을 유지하는 분임을 말해준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혼돈 대신 조화를 가져다주는 응집의 원리이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가 피조된 세계의 외적 질서의 중심이 되심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본질적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1:18a.** 그리스도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셨다. 18절 초반부에 기록하기를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이십니다” 라고 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골로새서에서 성도들이 어떤 지역에서 함께 모인 각각의 모임으로 나타난다 (4:15-16절을 주목하라). 또한 “교회”는 1:18, 1:24절처럼 일반적인 교회 (종종 보편교회라고 불림)를 가리키기도 한다.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는 비슷하게 사용된다 (엡 1:22; 3:10, 21; 5:21-33을 보라).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모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진술한다 (골 1:18; 또한 2:19; 엡 1:10; 4:15; 5:23을 주목하라). 이러한 식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그가 교회 생명의 근원이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 (1:18b-20)

**1:18b.** 그리스도가 '근원'이 된다 함은 그리스도의 선재성보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에 의존해서만, 그리스도에 근거해서만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이어서 1:18절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으로 설명한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계 1:5절을 보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밖의 서신에서 바울은 부활과 함께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 (고전 15:20, 23) 라고 표현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어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셨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빌 2:9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으로 드높였다.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외하고 소리 높여 찬양한다 (빌 2:10-11).

**1:19.** 부활하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모든 총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 하게 하시는 성육신 하신 주님이시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골로새 교인들이 헛된 “철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에서 후에 또 한 번 언급한다 (골 2:9). 비슷한 내용으로 요한복음 1:14절은 이렇게 진술한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였다.”

**1:20.** 하나님의 총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와 화해케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이다. 그 총만함은 하나님과 만물을 화해하게 할 수 있는 자격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은 예수의 단순한 중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바쳐 피 흘림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의 희생으로 인하여 생긴 화해의 효력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어떤 것도 예수의 희생이 가져다주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동적으로 화해에 참여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만 예수 희생의 효력이 무제한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일 뿐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거역하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고 화해의 은총을 거부한다면 그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다.

###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1:21-23)

**1:21-22.** 옛날에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고 “악한 행동”들을 일삼았다. 앞에서는 예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의 우주적 의미에 대해서 말했다면 본문에서부터는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악한 일'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됨'의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악한 행실의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됨으로 해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악한 행실'이었다는 것이다.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 된 마음은 악한 일을 하게 만든다 (엡 4:17-19절을 보라).

**1:23.** 하지만 골로새 성도들은 그들의 영적 월계관을 얻을 자리에 이미 안착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위치에서 화해사역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본절은 이전 절(22절)에서 말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위해서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바로 서는 일과 그리스도안에 있는 소망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 된다. 여기서 '믿음'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복음의 소망'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믿는 자들이 소유하게 될 궁극적이고도 완전한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리킨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은 6절에 표현된 것처럼 당시 복음이 계속하여 널리 전파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고립된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또한 복음이 하나님께 기원(起原)하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것임을 말해준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헌신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갈망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골 1:28) 이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이다.

## 교시를 위한 제안들

###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 삶과의 연결

1. 지도를 펴서 들고 있어라.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 하나를 지적하라. 당신의 손가락으로 당신이 가리킨 그 도시로 가지 않는 어떤 길을 추적하라. 그 길로 가면 그 도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하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 이르게 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 택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발언하라. 그러한 주장은 어떤 목적지를 도착하기 위해서 아무 길이나 택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지적하라. 반원 중 한 사람이 사도행전 4:12절을 읽게 하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주권을 입증하는 공부라 될 것이라고 말하라.

#### 학습인도

2. 이 이웃라인을 전시하라:

- I. 그리스도, 창조의 주 (1:15-17)
- II.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1:18-19)
- III. 그리스도 각 그리스도인의 주님 (1:20-23)

3. 반원들 중에서 그들 가족 중 가장 먼저 태어난 자녀가 있는지 질문하라. 가족의 그 자리가 어떤 독특한 기회들이나 책임들을 가져다주었는지 질문하라. 골로새서 1:15절에서 바울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먼저 난 자”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창조된 분이 아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먼저 난 분이시다. 그는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그 단어는 어떤 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위와 최고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4. 반원 중 한 사람이 1:16-17절을 읽게 하고 다른 반원들은 예수님의 창조적 역사와 연관된 다양한 것들에 주목하도록 하라. 바울은 어떤 창조의 순서에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라.

17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을 주목하라. 반원들이 만일 순간이라도 중력의 법칙이 멈추게 되면 일어날 문제들을 열거하게 하라. 만일 예수님이 순간이라도 “모든 것들을 존속” 시키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재난들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라.

5. 반원들이 두 번째 아웃라인에 주목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창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교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켜라.

반원 중 한 사람이 고전 12:27절을 읽게 하라. 읽은 고린도전서 이전 구절들에서 바울은 다양한 교회의 회원들이 어떻게 함께 기능을 발휘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의 다양한 지체들을 비유로 사용했었다는 것을 지적하라. 질문하라,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에 비유한 몸의 부분은 무엇인가? (머리) 질문하라, 이 역할로부터 반원들은 어떤 중요성을 추론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먼저 나신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주목하라. 바울이 이 진술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해보도록 하라.

6. 마지막 아웃라인을 가리키라. 각각의 아웃라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주권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지 말하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언하라. 우리의 화해는 우리의 믿음이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골 1:23) 서 있는 것을 요구한다. 이 구절을 학습공과에 나오는 참고 글인 “성도의 견인”에 나오는 내용과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성경주해의 내용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을 강조하라.

### 적용격려

7. 학습공과에 나오는 참고 글인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인정해 드리기”를 참조하라. 반원들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하라. 반원들이 지난주에 그들의 행동들을 묵상하게 하라.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때가 있지 않았는지 반원들에게 질문하라.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고 오는 주에는 믿음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b>[제 13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영적 속임수가 아닌 실재에 집중하라</b></p>
<p><b>핵심본문</b> 골 2:6-23</p> <p><b>배경</b> 골 2:6-23</p>	<p><b>학습주제</b>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영적 속임수를 주의하라</p> <p><b>탐구질문</b>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가 필요로 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일 때, 사람들은 어떤 영적 교묘한 속임수에 때때로 의지하는가?</p> <p><b>학습목표</b> 규칙, 의식, 그리고 신조와 관습에 관한 영적 장치가 아니라 실재,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한다.</p>

## 성경 주해

### 배경 이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것에 있어서 진리인 것이다 -- 그것은 헛되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떤 일정한 장소와,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썼던 것이다. 이제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 창조와 구속의 주인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독론을 설명하고(골 1:13-23),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사역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 대한 염려를 토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것을 권면한 바울은(골 1:24-2:7) 이어 본문에서는 골로새에 침투한 여러 이단 사상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계시와 신앙에 비추어 논박한다.

먼저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여러 이단 사상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과는 대조되는 공허한 것임을 밝힌다(8-10절). 즉 하나님의 충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되었고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채워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다.

본래 '철학'(필로소피아)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당시 '철학'은 궤변과 같은 언어 유희적 논증에 빠져 있었다. 게다가 그 당시 교회를 강하게 위협했던 영지주의도 헬라 철학을 원용한 일종의 철학의 한 유파였다. 그래서 바울은 본절에서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 그 자체가 이성을 사용하여 지혜를 추구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거나 속임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철학을 인본주의의 도구로 삼고 말의 유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철학은 거짓과 속임수가 된 것이다. 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드높이며, 실재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개념이나 말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철학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철학 사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의 철학이 아무리 과학과 객관의 옷을 입고 미혹하여도 그것들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2:5), 그는 골로새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자들에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골로새 교인들을 간곡히 타일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충만함과 자유를 기억하게 했다.

## 본문해석

###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기 (2:6-7)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울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주권의 빛 속에서 “살아야” (문자적으로 걷다) 한다. '행하되'에 헬라어 '페리파테이테'는 어떤 특별한 행위 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가리킨다(롬 14:15; 고후 4:2; 갈 5:16).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지만 (1:5-7절을 보라),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그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가 전하여 준 주 되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가운데 머무를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

### 영적 노획물이 되는 것을 조심하라 (2:8)

비록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쓴 것이 분명히 헛된 “철학”에 대한 염려로 우회적으로 썼지만, 여기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중들에게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 하라고 촉구한다. 바울 시대에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용어를 모든 종류의 시사들과 운동들을 의미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철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 그 자체가 이성을 사용하여 지혜를 추구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거나 속임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철학을 인본주의의 도구로 삼고 말의 유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철학은 거짓과 속임수가 된 것이다. “헛된 속임수”로 간주되는 것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영향을 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 두 가지로 정의한다. 사람의 유전 -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에바브라에게서 전해받은 유전인 사도적 전승(6절;1:7)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을 가리킨다(막 7:8;뱀전 1:18).

세상의 초등학문 -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토이케이아'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 혹은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O'Brien, 갈 4:3 주석참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비롯된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18절).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거짓 영과 같은 것을 섬기는 데서 비롯된 우상숭배인 것이다.

###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마음에 두라 (2:9-10)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노획물로 잡혀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총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골 2:9) 계시기 때문이다. 한편 '육체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지 않았다는 가현설(假現設)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분명한 반박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지니고 오셨음을 시사한다.

그리스도인이 신성의 총만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즉 하나님의 신성의 총만함을 소유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 즉 골로새 교인들이 당면한 거짓 교사들의 철학이나 모세의 율법 의식이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천사 숭배 같은 것들을 채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성의 총만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연합하시며 거하시기 때문이다.

### 할례, 침례, 그리고 십자가 죽음 (2:11-15)

2:11-12.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여자들도 그 가운데는 꽤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바울의 이 진술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바울은 본절에서 '손으로 행한 할례'가 '육체적 할례' 대신에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영적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다.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외적 표징이다(창 17:10-14,23-27;출 4:25;12:44-48;레 12:3). 구약에서 '육체적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전이되어 윤리적 요소를 강조하였으나(신 10:16;렘 4:4;겔 44:7) '마음의 할례'가 '육체적 할례'를 대신하지 않았다.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란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할례인 자신의 죽음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할례를 시사한다. 12절에서 “침례”란 골로새 교인들이 경험한 단순한 침례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사실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롬 6:3, 4).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총만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그들은 또한 그 안에서 “할례” 받은 것이다.

**2:13-15.** 골로새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활은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 (엡 2:1절도 참조하라) 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 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가? 과거 이방인으로서 무할례자였던 골로새 교인들은 이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11절)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진정한 할례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현재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적대 세력인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켰음을 암시한다. 십자가는 비극적으로 보였으나 실상은 승리를 거둠으로 이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자는 승리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

### 아무도 당신을 판단하거나 부적합자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2:16-19)

**2:16-17.** “그러므로” 는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에의 참여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빛을 탕감해주셨기 때문에 골로새 성도들은 그들 자신을 인간의 판단에 넘겨줄 필요가 없었다. 음식 문제나 (“먹고 마시는 것”) 날들 (“명절, 초승달 축제나 혹은 안식일들”)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날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판단받거나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와 유대인의 절기는 실체의 그림자 (17절), 즉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18-19.** 골로새 성도들은 헛된 철학자들의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정죄하도록 내버려 뒀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천사숭배를 주장하는 자들로도 그들을 비방하게 가만히 놔뒀서는 안된다. 저들은 자신들의 신비적인 체험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자랑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자랑은 '육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육체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나 생각과 반대되는 것으로(고전 2:14)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 혹은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19절 말씀처럼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저들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한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도리어 천사를 숭배하였다. 그러기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아니었다.

### 인간 규례들의 잘못된 지혜 (2:20-23)

**2:20-21.** 골로새서 2:6-19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한 뒤에 바울은 2:20-21절에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갈 3:1-4절도 보라).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의아하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혹은 세상의 초등학문) 왜 골로새 성도들이 인간의 규례나 의식들에 의해 묶여 사는 것을 선택했는지 질문한

것이다. 사실, 본질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처럼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아 율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 성도들이 각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22-23.** 그러한 모든 규제들은, 사도는 주장하기를, 순간적인 것이고, 표면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들이다 (막 7:17-23절 참조). 그 규제들은 인간으로부터 와서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다 (골 2:8 참조).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의 규정에 쓰여져 있고 헛된 철학자들(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금지 조항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유익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계명을 따른 행위에 불과하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 삶과의 연결

1. 가능하다면 낚시할 때 쓰는 가짜 물고기 미끼나 혹은 플라스틱 벌레를 반원들에게 보여주라. 이것은 보이는 것과는 사실 다른 것이다. 물고기에게 이것들 중의 하나는 먹이로 보일 것이지만, 만일 물고기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그 물고기는 낚시 바늘에 낚일 뿐이지, 먹이는 먹을 수가 없다. 바울은 그의 서신 중 이 부분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발언하라.

#### 학습인도

2. 골 2:6-7절을 소리 내지 않고 읽으면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 한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도록 하라 (6절을 보라). 반원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걷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아온 사람들이 밟는 당연한 과정이다.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걸어갈 때, 그들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사는 것이다.

3. 반원들이 바울이 8절에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거짓 가르침들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도록 하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 “성경주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사용하여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라. 질문하라, 바울은 진리의 유일한 근원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의 경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노획물이 되게 할 수 있다.)

4. 9-12절에서 바울이 헛된 거짓 가르침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총만함” 과 대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라. 더 나아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때문에 이미 총만함을 받았다. 바울이 더 나아가 육체적 할례와 침례 속에 있는 영적 의미와 체험들을 대비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바울은 침례 경험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비교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었다.

5. 반원 중 한 사람이 13-15절을 읽게 하고 다른 반원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승리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주목하도록 하라. 이 구절들을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내용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십자가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핵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라.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로 인해 그 어느 것도 신자들 위에 있는 권위는 없다.

6. 반원 중 한 사람이 16-19절을 읽게 하라. 16-18절은 다른 사람들이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했었던 종교적인 행위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라. 그러한 많은 종교적 행위들은 유대적 전통에 관련된 것임을 지적하라. 반원들에게 바울이 19절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을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질문하라. 누가 “머리” 인지 질문하라. 비록 좋은 의미로 했을지라도, 부가적인 규칙들과 의식들에 의해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신자, 혹은 교회의 위험성에 대해서 토론하라.

7. 반원 중 한 사람이 2:20-23절을 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경고하고 있는지 주목하도록 하라. 20절에서 바울이 왜 골로새 신자들에게 세상의 규정에 의해 얽매이지 않도록 말했는지 반원들이 발견하도록 하라. 22절에서 바울이 그가 언급했던 그 규정들은 인간의 명령이고 가르침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을 지적하라. 바울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가르침들에 의해 살아가는 삶의 책임을 무시하라고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라. 오히려 그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규례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고 “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 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규례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를 이길 아무 힘도 없다.

### 적용격려

8. 당신의 반원들 중에서 어떤 규칙이나 의식이 있는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하라. 많은 그러한 사교적이고 건전 단체들은 우리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언하라. 하지만 어떤 그룹에 속하기 위해, 그리고 상위 회원을 위해 특정한 활동들이 요구되는 사고방식이 교회에 적용될 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라. 바울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학습 주제를 참조하고 그 주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반원들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라. 헌신의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